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리학석사학위논문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 리 학 과

김 나 리

연령주의 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지도교수 손 정 렬

이 논문을 지리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 리 학 과
김 나 리

김나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6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 초록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노인 차별적인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 인식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쇠퇴와 사회활동 중단으로 인해 주거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주택에서의 주거생활은 성공적인 노후와 노인복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가 요구되는 노인복지주택은 고소득·고학력의 노인들의 전유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고, 거주민들은 배타적 연령주의와는 무관한 노인인구 집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정된 집단만이 점유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 속성을 알아보고,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인식에 미친 연령주의의 영향을 규명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설문조사와 주관적인 거주민들의 인식 도출을 위해 Q 방법론을 분석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메커니즘 탐색 결과 50% 이상의 노인들이 은퇴이후 ‘경제적 여건’이 아닌 ‘편의시설의 다양성’과 ‘건강’ 등을 주거 소비 기준으로 우선시 하고 있었고, 일상생활 활동영역 또한 주거 단지 내로 확장되면서 외부와의 소통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 서비스·여가 서비스·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 소비가 가능한 집단은 응답자의 90%가 대졸 이상의 학력과 약 75%의 응답자가 상층~중상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고소득·고소득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들로 한정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인인구 집단 내에서 상위의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Q 분석을 실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동일한 주거공간을 점유하지만 각기 다른 주거공간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공간인식의 차이는 주거이동

이전과 이후에 인지한 응답자들의 연령주의 인식에 의해 발생하였다. 응답자들의 주거공간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노화현상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와 심리적 박탈감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감행한 노인들로서, 주거공간을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집단은 노인을 바라보는 배타적 연령주의의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령·자산·가치관 등이 유사한 사람들과 모임으로써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이들은 주거이동 이후에도 혼합연령(mix-age)활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유지하는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주거공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집단은 노인복지주택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거이동 촉발은 이전 거주지에서의 배타적 연령주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주거공간 변화가 노인들에게 형성된 노인 차별적 연령주의를 없애는 작용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주거이동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나은 생활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마지막 집단은 젊음과 노화에 대한 신체·심리적 격차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삶의 질을 유지·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었다. 하지만 비자발적 주거이동에 의해 주거이동 이후, 노인복지주택의 새로운 일상생활 규범들에 의해 연령주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인식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인구집단 내 평균 이상의 소득과 학력을 가진 노인들을 대변하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 영향을 입증 할 수 있었고, 개개인의 주거이동 촉발요인과 가치관에 따라서 주거공간에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공간을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환경 구성 시 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인식에 대한 심층적 탐색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연령주의,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인식, 상위 노인인구 집단

학번: 2011-23143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4
1) 연구지역과 연구대상	5
2) 연구 방법	10
3. 연구의 흐름과 구성	13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5
1. 연령주의(Ageism)의 개념과 기능 및 유용성	15
1) 연령주의의 개념과 기능	15
2) 연령주의 측정방법	20
3) 연령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25
2.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주거행태	28
1) 주거공간인식과 우리나라의 주거공간인식 변화.....	28
2) 노인인구집단의 주거공간과 주거공간인식	30
3) 노인인구의 주거행태 특성.....	33
4) 노인의 주거이동과 노인주거선택 특성.....	40
3. 지리학에서 Q 방법론 활용	42
III.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제도적 특성	44
1. 노인공동생활주택 등장배경과 필요성	44
2. 노인 주거복지의 국가별 정책 변천	46
1) 선진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유형과 정책 변화	46
2)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과 정책 변화.....	53
IV.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행태 분석	58
1. 인구학적 특성	58
2.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 행태	62

3. 주거행태(residential behavior) 변화.....	68
1) 주거소비 행태 변화	68
2) 주거생활 행태 변화	70
4. 소결.....	78
V.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80
1.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Q 진술문.....	82
2.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85
3.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유형별 인식 해석.....	90
1) 제 1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92
2) 제 2유형: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96
3) 제 3유형: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100
4) 제 4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103
4. 소결	107
VI. 결론 및 요약	110
참고문헌	113
국내 문헌	113
국외 문헌	115
단행본과 보고서	120
부록	121
Abstract	128

| 표 차례 |

[표 I-1] 연구지역 현황	9
[표 I-2] R과 Q의 비교 분석 표	11
[표 II-1] 연구자 별 연령주의 척도	21
[표 II-2] 연령 집단 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령분리	27
[표 II-3] 주거이동 연구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35
[표 III-1] 시설과 주택의 차이점	45
[표 III-2] 국가 별 노인공동생활주택 역사적 특성	47
[표 III-3]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용 주택 관련법과 제도 비교	51
[표 III-4]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종류	54
[표 III-5]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대 별 현황	57
[표 III-6] 우리나라 전국 노인복지주택 현황	57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9
[표 IV-2] 연구지역의 주관적 건강상태·생활수준 비교	60
[표 IV-3] 연구 대상자들의 이전 거주 지역	63
[표 IV-4]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이동 과정 비교	65
[표 IV-5] 연구 지역 별 이동계획 영향 요인	67
[표 IV-6] 주거단지 내 활동 변화	72
[표 V-1] 주거공간인식에 대한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영향요인	83
[표 V-2] 요인 회전 후 요인적재량 산정	87
[표 V-3] Q연구 조사 절차 및 주거공간인식 유형 도출 과정	89
[표 V-4]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91
[표 V-5] 1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	92
[표 V-6] 1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95

[표 V-7] 2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96
[표 V-8] 2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99
[표 V-9] 3유형: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	100
[표 V-10] 3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102
[표 V-11] 4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103
[표 V-12] 4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106
[표 V-13]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인식 형성 과정	109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지역 위치	6
[그림 I-2] 연구지역의 입지 특성(N타워)	7
[그림 I-3] 연구지역 입지 특성(분당타워).....	8
[그림 I-4] 연구 분석 틀	14
[그림 II-1] 주거 공간 인식 영향요인	29
[그림 II-2] 이론적 주거이동 메커니즘	38
[그림 III-1] 노인복지주택 분포도.....	56
[그림 IV-1]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지역 이동.....	64
[그림 IV-2] 주거소비 기준 변화(N타워)	69
[그림 IV-3] 주거소비 기준 변화(분당타워).....	69
[그림 IV-4] 주거 단지 내 활동 변화(N타워)	71
[그림 IV-5] 주거 단지 내 활동 변화(분당타워)	71
[그림 IV-6] 외출 횟수 변화(N타워)	73
[그림 IV-7] 외출 회수 변화(분당타워)	73
[그림 IV-8] 외출 목적 변화(N타워)	74
[그림 IV-9] 외출 목적 변화(분당타워)	74
[그림 IV-10]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N타워)	75
[그림 IV-11]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분당타워)	75
[그림 IV-12] 노인들의 주거선택 요건(N타워)	76
[그림 IV-13] 노인들의 주거선택 요건(분당타워)	77
[그림 V-1] 진술문의 분류 방식	85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UN이 설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과거 노인 인구 집단은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과 가부장제에 기대어 사회·경제적 자원의 소유정도와 관계없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는 ‘노인을 위한 연령주의(ageism for the aged)’가 지배적인 사회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대의 노인인구 집단은 신체적·육체적 기능 감퇴 뿐 아니라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근간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 부정적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차별 등(노공균, 조소영, 신동숙, 이태훈, 1991; 정경희, 2004, 김주현, 2009; 이윤경, 2007 외)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들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가 현대사회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변화한 시각임을 간과하고 있다. 즉, 배타적 연령주의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위에 속한 노인인구 집단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노인인구 집단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선택적 친화력은 실버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으로 대변된다.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등장하면서 건강·의료 복지 서비스 및 노인관련 레저·주택 산업 등의 실버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원 그리고 2010년에는 약 41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은미, 2012). 특히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각종 여가활동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의 사람들 또한 유료 노인 전용 주거 시설에서의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들은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

거이동 주요 요인이 ‘노인부양을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갖는 심리적 안정감과 편리 감’으로 나타났다(홍형옥, 2005).

‘노인복지주택’이란 2008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입소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형태의 유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복지주택은 아주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접근 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되고 있고, 전체 노인복지주택의 80%정도가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또한 크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는 되지만 특정 노인인구집단만이 접근 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인구집단에게 주거공간은 심리적 안정과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노인인구의 주거공간 소비는 일생동안 축적해 온 자본 정도에 따라 결정(Costa-Font, 2008)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주택은 성공적인 노후와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지리학을 비롯한 심리학·노년학·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노인들이 주거공간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Rojo Pérez et al., 2007). 하지만 대부분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들로서 주거공간의 입지가 지역사회의 사회기반 서비스·대중교통·쇼핑센터 등과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Michael, 2006). 반면에, 노인용 주거공간의 유형적 환경이 아닌 이웃 간의 관계나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소속의식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Gale et al., 2011; Wiles, 2005)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인구집단과 그들의 심리적·행태적 환경이 주거공간인식에 미치는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배타적 연령주의와 무관하다고 간주되는 노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삼아 거주민들의 주거이동과정과 이동 이후의 주거공간인식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공간인식 유형을 기반으로 노인 복지주택이 지닌 다양한 공간성을 알아 볼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인구학적 정보를 비교·분석 하고, 주거 공간 변화에 따른 주거 이동·소비·생활 행태 변화 탐색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간 속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Q 방법론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을 유형 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공간 변화 메커니즘에서의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거공간인식 구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Q 분석을 통해 도출 된 주거공간인식 유형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주택의 공간성을 알아보고, 거주민들이 동일한 주거공간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역연령을 기준으로 노인(老人)¹⁾이라 일컬어지는 동질적인 집단에 의해서 점유되어지는 주거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리학자에게 큰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김부성, 1998). Burgun(1983)은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자의적으로 혹은 경제적, 사회적, 의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고립된 집단 거주공간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노년층을 위한 주거공간이 요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화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가치관을 존중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생활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되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연구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들을 노년기를 위한 주거공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집단이라고 한정하였다. 특히 이 집단에 연령주의(Ageism)관점을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노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연령 제한적 주거공간으로의 주거공간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인식 형성에 미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탐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만 치우친 노인주거공간 관련 연구들과 차별시키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과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개념과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 32조를 따랐고, 유형의 구분은 선행연구(한문희, 2011; 서강훈, 정영일, 2008 외)를 참고하였다.

1)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의한다(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개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이나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를 역연령(chronological age)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이라고 한다(김주현, 2009).

1) 연구지역과 연구대상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노인주택에 관련한 각종 논문이나 자료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택유형을 대동소이하게 입지유형·건물유형·시설수준 등의 기준을 통하여 구분 해 오고 있다(서강훈,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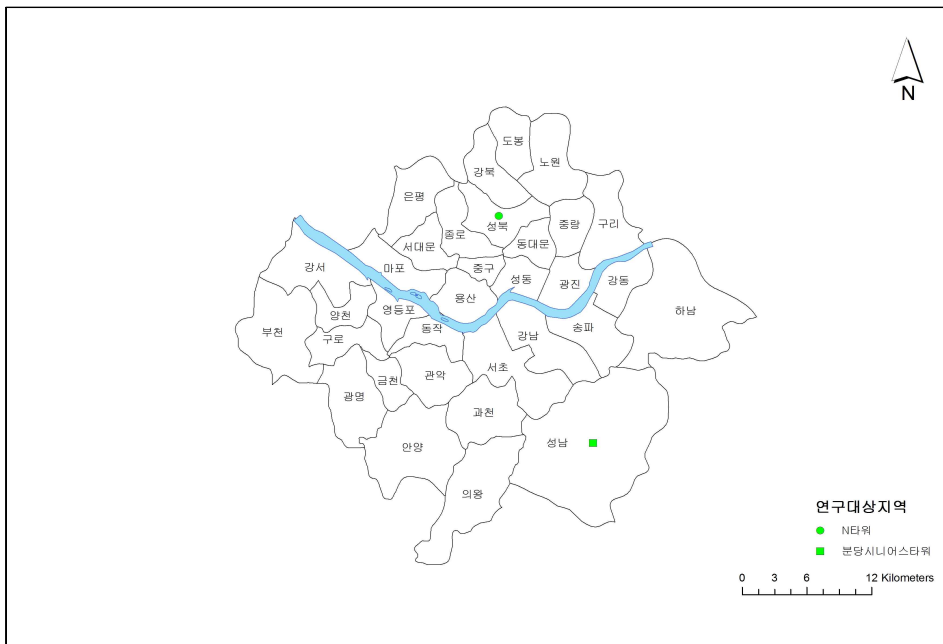
세 가지 기준 중 입지에 의한 주택 유형 구분은 거시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지방공공서비스·도시구조 변화 등에 대한 영향력에 차이를 만들고, 협의적 측면에서는 주거지 이동에 대한 전반적 의사결정 과정과 주관적 주택 선호 그리고 통근·통행권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양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에 관한 통합적 요인이라, 기준이 될 수 있다.

2010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노인복지주택 중 약 45%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약 27%가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권역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80%의 노인복지주택이 도시 혹은 근교에 입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던 노년층에게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교류는 물론 생활편의 시설 활용, 도시시설 활용 등의 이점을 향유하게 해준다. 때문에 초기에는 미국의 은퇴 공동체들을 모방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쾌적성을 확보하고, 관광과 휴양시설이 풍부한 전원에 노인들을 위한 주택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고령자 집단으로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 붐 세대들을 포함한 많은 노인들이 도시에 위치한 노인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한문희, 2007). 이는 대도시로부터 벗어난 교외의 전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의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한문희, 2011). 반면, 근교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은 도심과 전원의 입지적 이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해 오던 노인집단의 경우 계속해서 생활권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인 경상지출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들 중 두 곳의 연구지역을 선정하였고, 해당 주택의 거주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택의 거주민이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²⁾
- 둘째, 운영주체의 안정성과 건전성, 대형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이룬 곳³⁾
- 셋째, 거주민들의 정보 구득이 용이한 곳⁴⁾

그 결과, 연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91에 위치한 ‘노블레스 타워’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에 위치한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노인복지주택’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의 개괄은 다음과 같다([표 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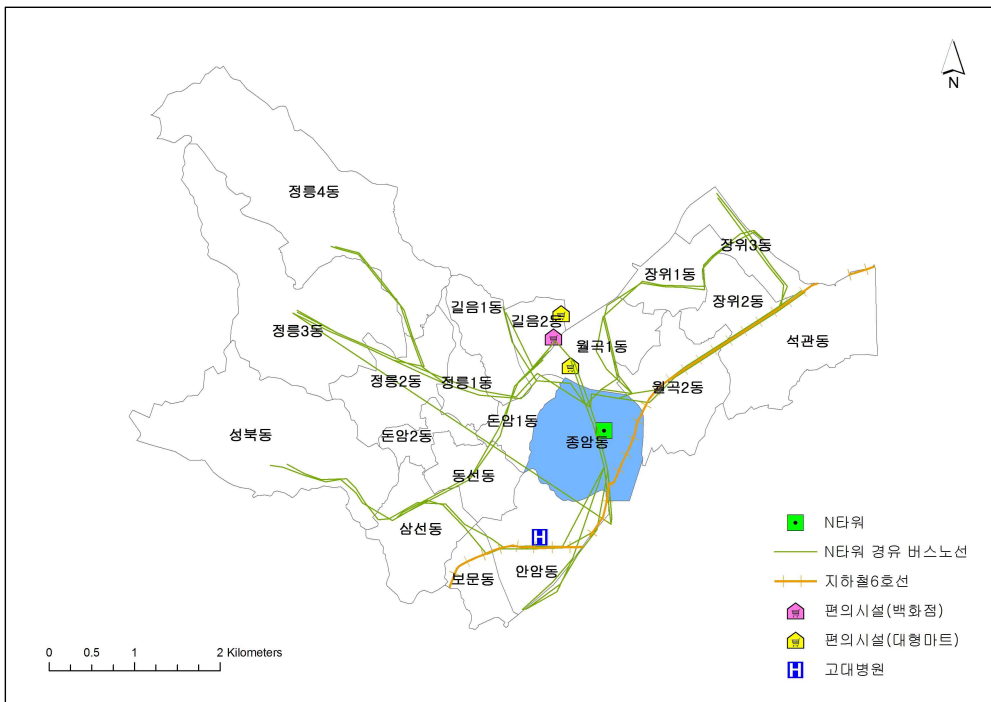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지역 위치⁵⁾

- 2) 2008년과 2011년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특색을 이용하여 65세 미만의 사람들도 거주가 가능한 곳이 많다.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6개의 노인복지주택 중 5개의 노인복지주택이 65세 미만의 사람들의 거주를 허가하고 있다.
- 3)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되긴 하나, 모든 서비스는 거주민의 보증금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부실하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 또한 실제로 운영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고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사례가 대중매체(동아일보, 2006.05.09)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 4) 노인복지주택은 대부분 외부인에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다. 따라서 거주민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출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 노블레스 타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91에 위치하고 있는 ‘노블레스 타워’(이하 N 타워)는 주식회사 「백마씨엔엘」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N타워는 2008년 4월 1일에 설치되었고, 2010년 기준 총 239세대 중 239세대가 모두 분양되었다. 이 중 총 16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22세대는 분양형태로 45세대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한 본 주택의 종사자 수는 총 32명이다. 입지적으로는 종암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6호선을 비롯한 8개의 간선버스와 6개의 지선버스 노선들이 있어 탁월한 접근성을 보이고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등 편의시설과의 거리 또한 가깝다는 이점을 가진다. N 타워 내의 생활편의 서비스로는 안전관리·의료간호관리·운동처방·건강식사 서비스·자산관리 서비스·생활편의 서비스·종합레저 서비스 등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조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병원과 의료협력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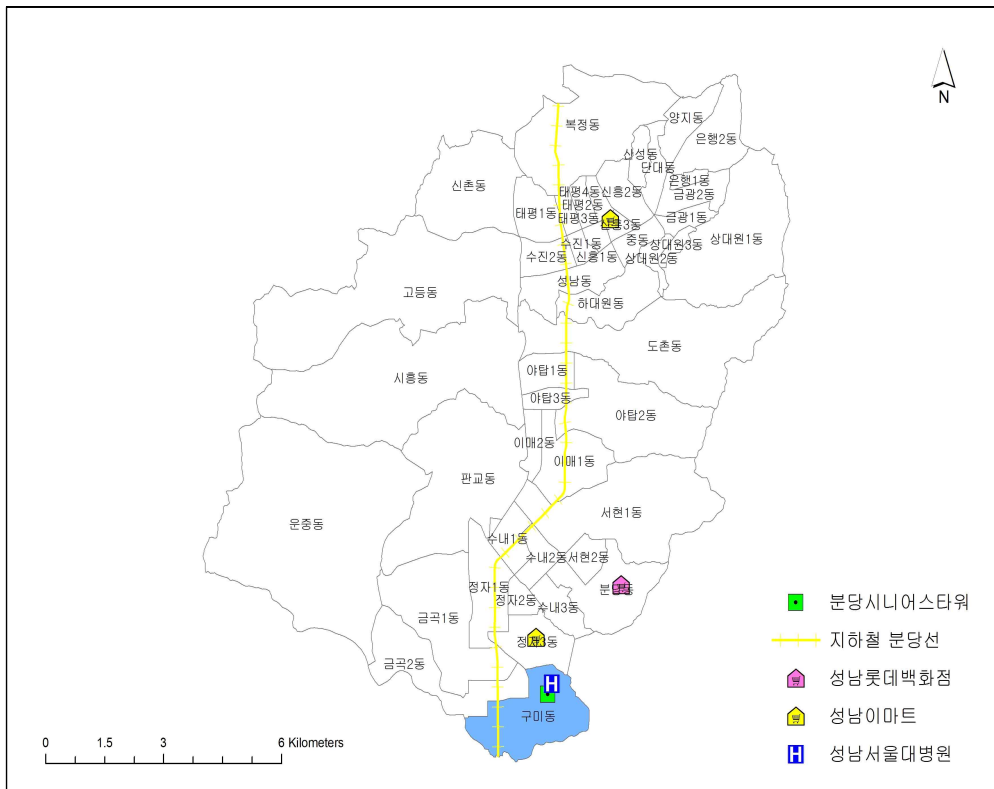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지역의 입지 특성(N타워)6)

5) 출처: biz-gis_인문사회 GIS DB

나) 서울시니어스 분당타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에 위치한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노인복지주택’(이하 분당타워)은 주식회사 「서울시니어스타워」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분당타워는 2003년 8월 23일에 설치되었고, 2010년 기준 249세대 중 분양이 182세대, 67세대가 임대되었으며, 거주현황 또한 동일하다. 분당타워의 종사자 수는 총 77명이다. 입지적으로는 분당선인 미금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상당히 때문에, N타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분당타워 내의 생활편의 서비스로는 의료간호·건강관리·건강식사·생활편의·안전관리·문화여가 등 거의 동일한 일상생활 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5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의료협력을 맺고 있다.



[그림 1-3] 연구지역의 입지 특성(분당타워)7)

6) 출처: biz-gis_인문사회 GIS DB

[표 1-1] 연구지역 현황

시설 명		노블레스타워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일반개요	위치	성북구 종암동	성남시 분당구	
	입지유형	도심형	근교형	
	개설년도	2008.04	2003.08	
	개념	가족과 함께하는 고품격 도심형 실버타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속 근교형 실버타운	
시설규모 (㎡)	대지면적(평)	5,348.7(1,618)	8,668(2,622)	
	건축면적(평/건폐율)	1,982(599/37%)	6,135(1,856/70.78)	
	연면적(평/용적율)	23,138 (6,999/297%)	40,618 (12,252/272.49%)	
	규모	전체-B2/14F 주거시설-2/14F 부대시설-B2/1F 기계실-B2F	주거-1/8F 생활편의-1F 의료·문화-B1/1F 스포츠-B2F	
	세대수	239(1동)	249(1동)	
	평형구성㎡(평)	63(19),73(22), 108(32), 120(36), 127(38), 146(44)	83(25), 93(28), 137(41), 142(43), 150(45), 155(47), 160(48), 165(50), 168(51), 195(59), 218(66), 264(80), 311(94)	
입주방식	계약방식	분양	분양+임대	
	입주비용(분양 시)	285,227,000 - 663,972,000	360,386,000 - 1,476,826,000	
	월 생활비	독신	735,000-1,113,000	664,560-1,160,000
		부부	1,185,000-1,563,000	1,096,560-1,592,280
	입주율	-	-	

1) 입주율은 운영주체의 사업성(운영) 보장을 위해 제시하지 않았다

2) 2010.1 기준

7) 출처: biz-gis_인문사회 GIS DB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을 도출하고, 각 유형들 간의 인식 차이를 그들이 경험한 주거공간 변화과정에서의 구조적·심리적·행태적 영향요인들에서 밝혀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Q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학·노년학 분야의 연령주의(Ageism)와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 해 오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의식에 해당하는 연령주의 개념에 척도를 적용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정·행동·인식 등의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지리학분야에서의 노인들의 주거공간 인식과 주거이동에 관련한 문헌을 통해서 노인들의 주거이동메커니즘을 파악하였고, 특히 이동촉발 원인에 따른 행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즉,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형성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연구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인 주거공간인식에 연령주의의 영향 정도를 고찰 해 보는데 연구의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중점은 거주민의 ‘주관적인 인식’ 도출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이해·신념·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Q 방법론을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심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된 Q 방법론은 최근 동물들의 권리·지속가능성·기후변화·산림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어오고 있고(Danielson et al., 2009),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는 도시개발계획이나 정책분야에서 적용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진상현, 2006). Q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자의 개입이 최소화 된 상태에서 대상자의 자아참조(self-reference)에 따라 행태와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주관적 선호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Danielson et al., 2009). 전통적인 R방법론은 객관성(objectivity)을 중심으로 현상에 대한 계량적 해석을 추구하기 때문

에 다수의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의 배경적 특성을 유형화 하는 실증주의적 연구에 적절하다면,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연구에는 집합(concourse)이론⁸⁾을 배경으로 하는 Q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김순은, 1999). 즉, Q 방법론은 개인의 객관적 견해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객관적 분석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에 따라, Q 방법론은 상관관계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 인간의 주관성을 수량적 방법으로 연구 할 수 있는 것이다. R 방법론과의 특징적인 차이점은 다음 [표 I -2]와 같다.

[표 I -2] R과 Q의 비교분석표

구분	R 방법론	Q 방법론
방법론	객관성(objectivity) : 경험과학으로써, 설명을 목적으로 함	주관성(subjectivity) : 해석학과 현상학에서의 이해를 목적으로 함
특징	Representative 방법	Exploratory 방법
변인	특성 변수	사람들 (의식)
측정방법	외부로부터 설명 : 조작적(operational) 정의	내부로부터의 이해 : 자결적(operant) 정의
가설과의 관계	가설 연역적 (Hypothetic-deduction)	가설 생성적 (Hypothetic-abduction)
연구자의 역할	외부의 객관적인 관찰자	응답자가 제시한 결과의 해석자
응답자의 역할	연구자가 분할한 변인에 대해 선호나 점수를 부여	자신의 가치나 마음의 태도를 유형화 함
응답자의 수	표본 수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해 줄만큼 많은 수	Q 분류를 수행 해 낼 관심 있는 잘 선별된 주체들(1인도 가능)

출처: 김흥규 (2008), 정규호 (2002), 진상현 (2000) 재구성

8) Concourse는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이나 가치, 느낌의 총체를 말하며 이것은 진술문의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 Concourse는 단순한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의견이고 concourse 진술문은 사람과 조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 Q방법론은 이 진술문을 느끼는 대로 분류해서 진술문들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김흥규, 2008).

마지막으로 2월 1, 6, 7, 8일에 이루어진 심층인터뷰는 분석 자료의 현실성을 더해주었다.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2 종류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 활동은 2월 14~26일에 이루어졌으며, 설문의 대상자는 N타워 거주민 21명과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의 거주민 24명으로, 총 45명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문: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인구학적 정보와 주거선택요인 및 주거 이동 요인 그리고 기본적 생활양식에 관련한 5점 척도 선택 문항
- ② 설문: 주거 이동 과정에서의 거주민의 주관적 연령주의 의식을 도출하기 위해 Q 분석을 실행. 비구조적 표집에 의해 선정된 46개의 Q sample들은 카드제시 법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통계분석은 PQ Method 2.11 프로그램을 이용

3. 연구의 흐름과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령주의(Ageism)의 역사적 등장배경과 정의의 진화적 측면을 통해서 연령주의가 주로 노인에 집중된 개념임을 파악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적용함으로써 지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가능케 함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될 대표적 척도를 선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인식 형성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노인들의 주거행태 특성을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주거공간인식 형성에 연령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리학 연구 분야에 Q 방법론이 적용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Q 방법론을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3장에서는 노인주택과 관련한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제도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주거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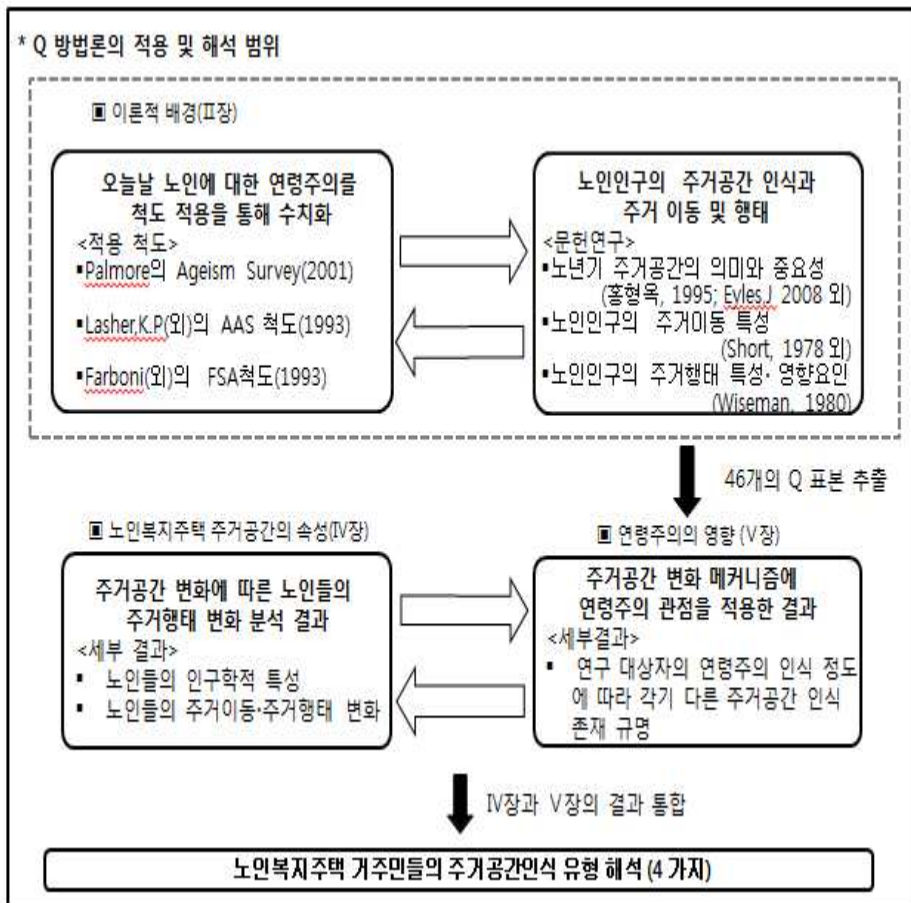
4장에서는 5점 척도의 선택형 설문문을 바탕으로 N 타위와 분당 타위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전반적인 주거공간 변화 메커니즘과 그로 인해 발생한 주거행태 변화를 통해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 속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주관적으로 또래집단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평균 82.5세의 노인들이 은퇴 이후, 주거 내의 편의시설과 건강 유지를 위해 주거이동을 통해 변화 된 주거공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물론, 일상생활 행태도 각 노인복지주택이 제시하고 있는 시·공간성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었음이 드러났다.

5장에서는 각 노인복지주택의 연구 대상자들이 주거공간 변화에 따라 인지된 연령주의의 변화와 도출 된 주거공간인식에 대한 연령주의 영향을 밝힐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유사한 수준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건강상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물리적 상태와 공급 서비스 또한 유사하지만, 연구 대상자들의 현재의 주거공간을 ‘노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등의 4가지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장 요약 및 결론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들이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 인식을 종합하여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연구 분석 틀은 다음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연구 분석 틀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연령주의(Ageism)의 개념과 기능 및 유용성

1) 연령주의의 개념과 기능

가) 연령주의의 역사적 등장배경과 정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령을 가지고 있고, 종종 연령은 인간의 일생을 가늠하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척도가 되기도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연령은 사람들의 태도, 행위양식, 대인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서 사회·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활동과 그것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령의 굴레’에 얽매이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Chudacoff, 1989).

많은 학자들은 ‘교육’을 연령주의가 등장하게 된 최초계기로 본다(Chudacoff, 1989). 교육 분야에서 연령계급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연령을 의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서 인간의 인지력·사고력·지능 등에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령을 무시한 교육은 효율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의학기술 발달에 의해 어린이들 치료를 위한 ‘소아과학’이 분리되어 자리 잡게 되면서 연령의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02년 프랑스 파리에 최초로 세워진 ‘어린이 병원’에 의해 어른과 어린이의 치료 공간 분리로 이어졌고,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독립적 공간들이 인정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년별 교육제도와 소아과학의 확립은 연령의식과 연령분류를 사회문화 전반에 침투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Chudacoff, 1989 재구성).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깊숙이 고착된 ‘특정 연령집단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인식’이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어느 연령집단이든 일단 연령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

제 사회에서는 고령자 집단이 연령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Levin & Levin, 1982).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졌다(Bytheway & Johnson, 1990). 광의적 관점에서 연령주의는 연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물학적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신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협의적 관점에서는 연령을 기반으로 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Bytheway, 2005). 협의적 관점에서의 가장 고전적 해석으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Butler(1975)의 주장으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다. 즉,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들을 자신들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미묘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점이다. 반면, Comfort(1977)는 역연령 변화에 따른 육체적인 변화와 이로 인해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형식적인 정체성들을 보이는 특정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을 연령주의라 정의했다.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은 협의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연령주의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첫 번째로 Search(1977)는 연령주의의 다른 양상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4가지 인용문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해당여부 탐색을 통해 연령주의를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고, 유사한 방법으로 Norman(1987)은 고령자의 긍정적·부정적 양상들을 리스트 화하여 이를 경험한 고령자가 ‘연령주의’에 속해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세 번째로 Bodily(1991)는 역연령에 의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개념화 된 연령을 기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 또는 특성, 능력, 한계의 속성들 모두를 연령주의라고 정의하였다(Bytheway & Johnson, 1990). 마지막으로 Bytheway(1995)는 노인들은 추하고 고집이 세며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같은 편견과 젊음이 늙음보다 낫다는 등의 태도와 사회가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연령주의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노인은 차별적인 연령주의에 속해 있는 것이라 하였다. 즉, 연령주의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학자들 간 연령주의 개념의 적용 범위에 의한 차이일 뿐, 각기 다른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고착화 된 인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명을 가진 모든 인간은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가해자와 연령주의에 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의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성(gender)’와 ‘인종(race)’을 변수로 하는 성 차별주의(sexism)나 인종 차별주의(racism)에 편승한 제 3의 이즘(-ism) 측면에서 논의를 확장 해 가는 것은 옳지 않다(Blackmore, 1989; 김옥, 2003).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Ageism)를 가정, 복지·의료, 고용, 예술, 문학 등 가치관이나 사회생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인식된 차이(김주현, 2009)라고 개념화 하고, Bytheway(1995)⁹⁾의 관점에서 연령주의를 보고자 한다. 연령(age)은 미용과 옷차림 그리고 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거부하거나 숨길 수 있기 때문에(Katz&Marshall, 2003), 출생 연월의 연령(역연령)을 바탕으로 한 연령주의 관점들보다는 각기 다른 사회의 문화적 힘과 주관적 의식과 태도를 강조한 Bytheway(1995)의 관점이 가변성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연령(주의)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9) 연령주의 정의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사항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① 연령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원되어지고 노화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 ② 연령주의는 집단의 행동들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평범한 노인들이 초래한 연령주의 관점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더욱 더 연령주의가 강화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연령주의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 (a) 연령주의는 노화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특정 기능의 손실을 고려하여 유형화된 추측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인식을 강화 시킨다
- (b) 연령주의는 조직적으로 다른 이들이 누리는 기회들과 자원들에 대한 권리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계층을 구분 짓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Bytheway and Johnson, 1990).

나)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 전개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은 분명히 한 개인의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갖가지 노후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personal troubles)로 간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노인’ 자신의 개인적인 노화과정과는 별도로, 누가 노인이며, 그들의 노화(aging)와 관련된 지위와 역할이 그 사회에 의해 재규정될 때, 노인문제는 사회문제(social problem)로 전환된다(Matcha, 1997).

전통적으로 한국 노인들을 그들의 가족성원들과의 유형화된 종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해 왔다(이광규, 1983). 이러한 전통적 연령주의의 근원은 전통사회의 보편적 가치규범으로 작용한 “효(孝)”라고 할 수 있다. “효”는 기본적으로 자식과 부모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부모에 대한 일방적 관계가 그 규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박희, 1997). 즉, 과거 우리나라의 연령주의는 종적인 부자관계나 장유관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연장자인 노인(老人)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경 위주의 전통사회는 본질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사회질서의 기본적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령주의(ageism for the aged)를 지탱해 온 연장자의 권위는 물론, 그들이 존경받는 데 필요한 사회제도적 규범은 무너졌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는 낮은 생산성과 기능저하에 의한 능력저하를 겪게 되는 노인들이 사회구조적으로 배제되면서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로 전환되게 되었다(김주현, 2009).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의 덕목이 유별나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 있고(박재홍, 1991),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은 고정불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와 관심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압축적인 가치체계의 변동 속에서 시장질서에 의한 보상(rewards)이 가능한 특정 노인인구집단을 위한 건강·의료·레저·주택 등의 실버산업들에 대하여서는 높은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집단 외부적으로는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집단 내부적으로는 자본의 불평등 속에서 구조화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들 또한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인구 집단이다. 하지만, 이들은 노인을 위해 공급되는 최상의 물리적 주거공간을 소비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노인들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 시각과 같은 사회적 환경으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인식에 대한 연령주의 영향을 도출해 봄으로써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연령주의 측정 방법

Bytheway(1995)의 연령주의 관점인 노인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척도를 적용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김주현, 2012), 사회복지학이나 노인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령주의 논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노인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1944년 초 Dinkle(1944) 연구를 그 시초로 한다.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들은 대부분 리커트 척도(Likert)·씨스턴 척도(Thurstone type)·의미차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s)·형용사 척도(Adjective checklists)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척도들의 관점들은 시대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1950~1960년대에는 역사적으로 고착화 된 고령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970~1980년대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고정관념들만을 평가가 요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연구자 별 관점의 특성은 다음 [표Ⅱ-1]과 같다.

[표 II-1] 연구자 별 연령주의 척도

연 도	연구자 (척도 명)	척도의 구성
1953	Tuckman and Lorge scale	부정적 고정관념과 미신들을 13개의 범주로 구분
1961	Kogan's Old People Scale	소수민족집단의 고정관념 연구로부터 진술문들을 대체하여 구성
1969	Rosencranz and McNevin	단일특점 이상으로 측정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고정관념의 세 가지 요인을 추가
1976	The Salter View of Elderly Scale (Salter&Salter)	노인들을 향한 응답자의 태도와 관련한 6개의 지역들을 평가한 결과로 구성
1976	Kilty and Feld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노인육구와 관련된 35개의 진술문과 이전 척도들에서 확실한 진술문 45개를 결합하여 구성
1977	Facts on Aging Quiz(Palmore)	이전에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오직 사실에 기반을 두어 활용되어진 인지적 요소들로 구성
1980	Kager et al.	세 가지 쟁점을 접근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법 재현 (Stereotypic Age Decrement / Personal Anxiety Toward Aging / Social Value of the Elderly)

출처: Fraboni et al.,1990, p. 57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령주의 척도를 노인인구의 주거이동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이 주거이동 과정을 비롯한 현재 주거공간에 대하여 형성되어 있는 인식과 태도에 노인 맞춤형 주거공간과 우리나라의 연령주의가 미친 복합적 영향을 파악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Palmore의 척도는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틀이고, 노화불안척도(ASS)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닌, 본인이 노인일 경우 혹은 노인이 되었을 경우의 인식 될 수 있는 연령주의를 대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FSA척도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노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척도를 종합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들의 공간형성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가) Ageism Survey 척도

Palmore의 척도¹⁰⁾는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 사회의 노인차별정도가 어떠한지, 어떤 유형의 노인차별이 더욱 현저한지, 그리고 노인차별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편견과 차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문항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대상은 일반 노인이고, 척도 문항의 응답 범주는 3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총 점수는 0점에서 4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Palmore, 2001). 분석 결과 연령증가에 따른 질병과 약해지는 노인들에 대한 ‘무례함’이 가장 빈도 높은 차별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과 편견이 연령 뿐 만 아니라 성별과 교육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연령과 성별은 큰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노인들에 비하여 연령주의에 더 노출되어 있다고 지각함을 밝혔다. 따라서 Palmore의 연구는 노인인구가 직접 경험한 연령주의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노인인구집단 내에서의 연령주의 인지(認知) 차이 요인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Palmore의 척도는 미국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노인차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 되어오고 있다.

나) 노화불안 척도(AAS)

Lasher & Faulkender의 척도¹¹⁾는 노화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 노화불안은 노화과정을 겪는 노인들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중재요인이며, 노인들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태도나 행동을 중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노화불안이 고령자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매개 요인일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10) [부록1] 참고

11) [부록2] 참고

이 척도는 25세 미만부터 75세 이상까지의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 추출된 하위요인들은 4개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심리적 불안정(Psychological Concerns), 외모에 대한 걱정(Physical Appearance),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es)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노인들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을 긍정적인 문항으로 개발한 내용이고, 심리적 불안정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고령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직면해야하는 중요한 심리적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인 외모에 대한 걱정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문항이며 마지막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문항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소중한 것을 빼앗기거나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을 다루고 있다. 즉, 노화불안 척도(ASS)는 노인들을 비롯한 잠재적 고령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측면을 주목한 척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노화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과 노인에 대한 태도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척도를 적용한 연구들은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노화에 대한 적응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 연령주의 척도(FSA)

Farboni et al.¹²⁾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척도들이 태도의 인지적 측면만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 차별적 태도, 회피 욕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감정적(affective) 요소를 포함한 도구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연령주의 측정에 있어 더욱 정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 척도는 231명의 자료를 구축한 후, 평균연령 31.19세의 총 12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를 통해 연령주의의 한 척도로서 FSA의 구성 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내적 일관성의 신뢰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평가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FSA 척도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추출된 하위요인은 비방, 차별, 회피 등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Fraboroni et al.,

12) [부록3] 참고

1990). 먼저, 비방 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노인에 대한 오해, 신화로부터 증폭된 적의, 혐오의 표현 등에 관한 것이고, 회피 요인에 대한 항목은 사회구조 내에서의 노인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행위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극단적인 연령주의와 관련한 것으로 격리(segregation)와 같은 강한 편견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앞선 척도들과 달리 FSA척도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비롯하여 사회 구조 속에서의 노화에 따른 사람들의 위치(position)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FSA 척도를 적용한 연구들이 각기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연령주의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연령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국내 연령주의(Ageism) 논의들은 대부분은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밝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욱(2003)은 한국노인의 노인차별경험정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을 편의표집으로 추출한 60세 이상 노인 427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차별유형은 다르지만 그 수준이 구미 선진국과 비슷함을 밝혔고, 이후 차별감 완화를 위한 제도나 서비스가 시급히 요망됨을 강조하였다. 김윤정 외(2004)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년·중년·청년 세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청년·중년 세대에 비해 노년세대가 더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박경란·이영숙(2001)은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에 비해 중년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다른 요인(심리적 상태·삶의 만족도·가족과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남석인(2008)은 서울 노인종합 복지관을 이용하는 남성노인 215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사회적 지위와 가족 내 역할 변화를 겪는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노인인식과 노년기 태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고, 차별경험이 노년기에 대한 태도와 의식에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원영희(2005)는 서울시 및 수도권권에 거주하고 있는 3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차별 피해경험(무시·기피·소외영역의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영역(노동·돌봄 등)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김동선, 2011; Dennis & Thomas, 2007; Rupp, Bodanovich & Crede, 2006)와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한정란,

2000) 등이 있다. 이외에 노인인구 집단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국내의 논의들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간주된 ‘노인’과 관련한 문제들에 연령주의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정도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외연구들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령주의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연령 집단 별 공간분리와 배제에 대하여 주목해 왔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노인들의 공간분리에 관한 문헌들은 주거시설의 분리로 인한 혜택들을 강조 해 오고 있으며(Hagestad & Uhlenberg, 2005),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거주 공간분리가 거주민들의 정체성과 자아실현 정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Townshend(2000)는 캐나다 알버타 주(州) 캘거리 내에서 연령분리가 이뤄진 은퇴 촌들의 노인들과 주거이동을 겪지 않은 노인들에게 장소기반(place-based) 커뮤니티가 각 노인들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역할을 탐구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노인들의 자아실현 정도에 거주지 이동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아실현 정도에 중요한 예측 변수로써 커뮤니티가 지닌 수준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노인인구 집단 내에서의 공간 환경에 대한 합의가 유사한 심리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로 Smets(2011)는 네덜란드 플레볼란트 주(州)에 계획된 1,500여 개의 주택이 들어설 ‘고령자 도시(senior city)’건설 계획과 가용주택 부족이라는 문제에서 입각하여, 노인들의 잠재적 이동여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5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중 20명과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기존의 생활권과 가깝고, 생활서비스 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으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연령집단과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노화’현상이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의 수요에 대한 강한 영향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는 노인용 호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클러스터 도시계획 정책’의 성공여부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커뮤니티보다는 주택의 입지에 따른 ‘접근성’과 기존 생활권 유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Hagestad & Uhlenberg(2005)는 기존에 수많은 연구들이 연령분리(age segregation)와 관련한 소재들을 간과해 오고 있고, 연령주의

(ageism)와 결합된 논의들 또한 아주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하여, 네트워크 적 측면에서의 ‘연령의 사회적 구조화’에 관하여 논의하였다([표 II-2] 참고). 연령의 계층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고착된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연령 등급체계 모델(Riley and Riley, 2000)’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지연(structural lag)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통합연령(cross-age)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이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II-2] 연령 집단별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령분리

구분	Core Discussion Partner's Age			
	비 친족 관계		친족관계	
응답자의 연령	36세 미만	53세 초과	36세 미만	53세 초과
19-30세	83%	3%	32%	28%
61세 이상	6%	72%	24%	42%

출처: Hagestad and Uhlenberg, 2005 재인용

마지막으로, McHugh & Larson-Keagy(2005)는 1960년대 실버타운 전문개발업자인 Del Webb에 의해 형성된 애리조나의 ‘Sun City’가 오늘날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이들은 Sun City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연령이 제한된 ‘은퇴 공동체’들은 많은 도시들에서 멀시의 대상이 되고, 정식 시민으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처우와 배타적 연령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연령 분리가 이루어진 ‘은퇴 공동체’가 배타적 연령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주거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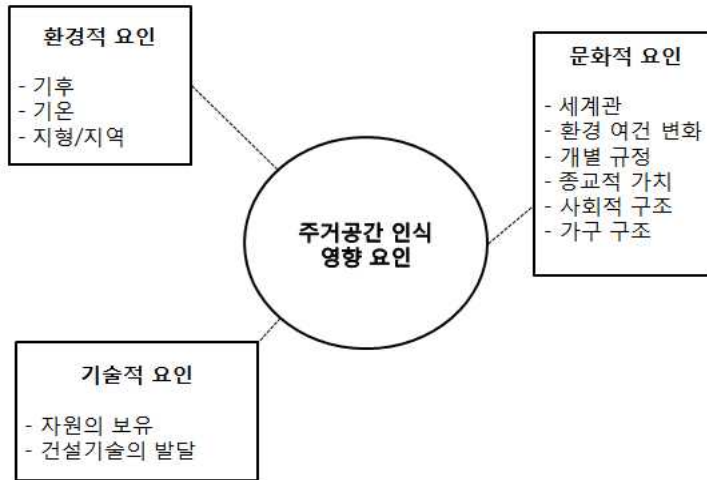
주거공간은 정치·경제·문화·기술 등이 녹아있는 하나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진애, 1994). 즉, 주거공간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만을 위한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대변되는 유동적이고 경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인구의 주거공간인식과 그들이 가지는 주거행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거공간인식과 우리나라의 주거공간인식 변화

주거공간인식이란 거주자가 내·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여 인출하는 일련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 지각·기억·상상·개념·판단·추리 등을 생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주거는 ‘거주자와 거주하는 공간 사이의 의미 있는 관계’(Dovey, 1985)¹³⁾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주거공간은 거주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거주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가 담겨 있는 총체적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이상은·최재필, 2002),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논리 측면만을 강조하여 주거공간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림 [II-1]의 복합적인 영향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결과 형성된 각 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인식은 시대 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13) Dovey(1985)는 주택(house)과 주거(home)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주거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택(house)은 하나의 사물이고 환경의 일부로 속하지만, 주거(home)는 dwelling의 의미가 강조된 거주자와 거주공간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II-1] 주거 공간 인식 영향요인

출처: Altman and Chemers, 1986, p.156

우리나라의 전통적 주거공간에는 대외적 신분서열에 따라 가옥의 크기가 결정되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과 같이 의도치 않은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사회는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지내는 생활공간·농사일을 위한 보조 공간·혼례, 상례, 잔치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일생을 영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영구적인 공간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이였다. 이후, 우리나라의 주거사상¹⁴⁾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오늘날 주거(home)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거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선택한 주거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고 주거공간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개성과 기호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스스로를

14) 광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거공간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역사적 측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김용범, 2001).

- ① 봉건적 유교사상의 쇠퇴와 생활영역에 대한 의식의 변화
- ② 주택생산, 공급방식의 변화와 전통적 주거사상의 붕괴
- ③ 직주분리에 따른 가정분위의 주거사상 확립
- ④ 생활의 편리함과 합리화의 추구
- ⑤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 여성 중심의 주택 근대화
- ⑥ 서구 생활양식의 자주적 수용

의도적으로 구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곤 한다. 물론 주거공간에 대한 사고관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 성별·연령·학력·경제적 차이·생활수준의 차이 등과의 상관관계도 존재한다(홍형욱, 1995).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전통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한 주거이동을 경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거공간이 가지고 있던 ‘영속성’은 ‘일시성’의 성격으로 변화하였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주거공간인식 변화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주거공간을 통해 공간 소비 주체들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 노인인구집단의 주거공간과 주거공간인식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경제·문화적 구조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경우 노인인구 집단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간을 공급함으로써,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문제들의 일정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신화경, 2008). 이러한 새로운 주거공간이 등장함에 따라 노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와 경험 등도 다양해질 수 있다. 더욱이 주거공간의식은 기본적으로 생애주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동일한 생애주기의 속하는 집단만이 모여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 연구는 연령과 주거공간의 상관관계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 낼 수 부분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동 능력 감소 혹은 만성적인 질병을 겪을 수 있는 노인들이나 사회적·지리적 공간에서 행태의 ‘움츠려 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은 점점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인식(O’Brien et al., 2002)하게 되고, 다른 집단과는 차별화 된 주거공간인식을 기대 할 수 있다.

노인인구 집단 주거공간인식 형성에 대한 영향요인과 중요성은 물리적·행태적·인지적·감정적·사회적 측면 등 5가지 범주¹⁵⁾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15) 다음의 5가지 범주는 노년기의 주거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M.E. Prieto-Flores et al., 2011).

있다(Prieto-Flores et al. 2011). 특히, 인지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특징들은 필연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기능저하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노인인구 집단의 주거공간인식 형성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은 주거공간에 대한 소속감·고착화 된 주관적 장소 정체성·장소에 대한 만족과 애착심 등에 의한 인지(perception)정도는 주거공간 내에서 노인들의 행태를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노인인구집단의 주거공간인식은 노인들의 ‘잘 사는 것(well-being)’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Eyles & Williams, 2008).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거공간은 개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원으로 존재 해 오고 있다(Kontos, 1998, 2004). 특히, 노인들에게 주거공간은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 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주관적 의미와 경험을 통한 전기(傳記)적 의미성을 수반한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의 주거공간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노인들을 노화에 따른 기능적 저하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곤 한다(Nair, 2005).

오늘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집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¹⁶⁾ 과거에는 노령화됨에 따라서 주변도시(edge city)나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높은 곳 과 같이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쾌적한 전원 지역으로 주거이동을 하는

-
- ① 주거공간의 물리적 측면: 주거공간 상태, 주거공간의 접근성, 주거공간 내의 상태 등
 - ② 주거공간의 행태적 측면: 매일 반복되는 주거공간 내 다양한 태도/행위 등
 - ③ 주거공간의 인지적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 된, 주거공간 애착정도
 - ④ 주거공간의 감정적 측면: 경험으로부터 얻은 주거공간에 대한 친밀함·안전함·안정감 등
 - ⑤ 주거공간의 사회적 측면: 주거공간 내에서 형성한 이웃·방문자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

16) 노인들의 전반적인 자아인식과 행태는 노인들에 대한 통념 화 된 사회적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김부성, 1998).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자아개념 형성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A) - 자각(P) - 자아개념(S) - 자신의 행동(B) - 다른 사람의 반응(A)의 순으로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의식변화를 설명 할 경우, 어떤 사회에서든지 노화나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다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노인이 존재하기 힘들고, A-P-S-B-A의 악순환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노인들은 주변 환경의 쾌적성보다는 기존의 가족·이웃·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촉진시켜줄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다(Rojo-Pérez et al., 2007; Wiles, 2005). 이는 오늘날 건강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많은 노인들이 직장과 가정, 이웃을 통해 자신의 삶이 규정된 곳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주거공간을 원함을 뜻한다. 때문에 복지 선진국들은 주택(house) 자체가 노인들의 욕구를 완전히 지원해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조를 통한 지속적 거주를 가능하게 하고, 일정부분은 보조 기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을 공급함으로써 노인들이 겪는 노화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존 주택 개조나 서비스 지원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을 유료로 공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공급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유료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주거시설로써, 노인이 원하는 의료시설·여가시설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공간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주거공간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만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노인인구 집단 내·외 부적으로 차별화와 배제의 동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Costa-Font(2008)는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장애의 정도에 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주택 자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인 장애 불균등의 54% 또한 주택 자산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렇듯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공간은 노화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상실과 저하’를 ‘aging well’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노인을 현대 도시의 일상공간에서 해가 되고 집단으로 낙인화하고, 종종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인식하여, 결국 노인을 격리시키는 공간이라는 비판과 선입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Valentine, 2009).

3) 노인인구의 주거행태 특성

가) 노인인구의 주거행태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집단은 청·장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노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집단으로 다른 세대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주거 소비·생활 행태와 주거이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진미운·이현, 1995).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연령증가로 인하여 신체적·생리적·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기능저하와 통제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은퇴로 인한 사회 활동 중지로 인하여 더욱 더 강화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경제력을 주요 요인으로 삼아 노인인구의 주거행태를 설명(Holden, 1998; Schwartz et al., 1984)하는 논의들의 한계점을 지적 할 수 있는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즉, 주로 개개인의 경제력을 대변하는 청·장년층의 주거행태와는 달리 건강약화와 은퇴 그리고 자녀의 분가와 유 배우자 상태 등의 차별적 요인들이 노인인구 집단 주거행태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진미운, 1995; 신영숙, 1998; 서은미, 2005 등). 이렇듯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변화들은 주거행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노인인구 집단과 주거공간 혹은 지역 환경 간 나타나는 다른 세대와는 차별화된 영향요인들과의 상관성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Prezza et al.(2001)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내의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은 삶의 질과 노령에 따른 고독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혔고,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정서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Park, 2009)이 드러났다. Prieto-Flores et al.(2011)는 일반 주거공간과 보호기능이 결합된 주거공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거공간에서의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가 고독감은 물론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노인들에게 매일의 일상을 보내는 주거공간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애착심을 발전시키고 보존하면서 신체적 기능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는 연령증가에 따라 누구나 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

기 때문에 결코 특수한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노령화에 따른 갖가지 문제들을 보조 해 줄 수 있는 주거공간 혹은 환경을 찾는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집단이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적응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기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을 시도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보호기능이 결합 된 노인집단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공통적으로 교통 편리성, 생활 편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건강상태, 사회적 인식과 자녀들과의 관계 등(진미윤, 1995; 홍형옥, 2001; 서은미, 2004; 지은영, 2002, 2004 등)을 주거 행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즉, 현대사회의 노인들은 노인용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변과 격리된 공간이 아닌 기존의 누려오던 생활권 혹은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자 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주거 행태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특성

주거이동은 주거공간 변화를 유발하는 주거행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거공간인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한 노인 개개인에 대한 주거이동 메커니즘 탐색을 통하여 그들의 주거행태의 특성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공간인식을 규명 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노인인구집단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주거이동은 인구이동의 하위 형태로써 좀 더 국지적인 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migration보다는 residential mobility로 표현된다.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동거리와 이동방향, 출발지와 도착지의 특성, 이동에 영향을 미친 원인 등을 주제로 삼는 거시적 접근법과 개인·가족의 이동과 관련된 행태적 특성, 의사결정과정 등의 미시적 주제를 다루는 연구로 나뉜다(이정섭, 2010). ([표 II-3] 참고)

[표 II-3] 주거이동 연구의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구분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
이동의 성격	도시 내 인구의 공간적 재 분포 과정	개인의 주거에 관한 복지증진의 적응과정
분석 측면	총계적(aggregate) 지리학적, 요인생태학적	개인적(individual)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
주요 연구주제	도시내 주거이동의 사회공간적 특성 -이동과 이주자의 속성 -이동률의 공간적 특성 -주거이동과 주거환경 구성요소의 관계	가구주의 주거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이동의 결정 -이주자의 탐색 -이주자의 평가
분석 자료의 특성	도시 내 단위공간별 이동 및 주거지역 특성에 대한 센서스 자료	개인의 주거입지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출처: 이정섭, 2010, p.32

지리학에서 주거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도시 내 인구의 분포 또는 주거이동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Simmons, 1968) 즉, 이주계획을 가진 지역에 대한 탐색·방향·이동거리 등에 관한 고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도시 내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는 1955년 필라델피아를 사례로

한 행태적 연구를 통해서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가 주거이동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처음 제시한 Rossi의 연구를 이래로 시대 별로 다른 이론적 접근방법¹⁷⁾을 취해오고 있다. Rossi(1955)는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의해 수반되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발생하는 ‘생애주기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Laslett(1991)는 생애주기를 네 단계로 구분 지었다. 첫 번째는 제 1연령기(the first age)로 생산 활동 이전에 사회화와 교육 등의 기간을 갖는 청년 이전의 사람들을 말한다. 두 번째 제 2연령기(the second age)에는 생산 활동을 시작하여 독립적으로 일과 경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성년들이 속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제 3연령기(the third age)인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은퇴이후에 자아실현과 자기달성을 위한 기회를 얻거나 개인적인 업적을 남기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제 4연령기(the fourth age)는 노쇠하여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Townshend, 200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애주기 모델(life-cycle model)을 중심으로 제 3 연령기에 접어든 노인들의 주거이동의 메커니즘과 연령에 따른 주거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5년 간(2004-2008년) 수도권의 연평균 인구 이동률은 40.16%로 전국 평균 36.3%보다 3.86% 높게 나타났다. 공간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라 할 수 있는 인구이동을 이동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인인구 이동률이 28.37%인데 비해 비 노인은 41.3%로 12.93%가 높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전국에 비해서 빈번하고 비 노인의 이동이 노인에 비해 1.46배 많음을 의미한다(이희연, 2010).

Wiseman(1979)은 위와 같은 생애주기 후반에 속하는 노인들의 주거이동이 젊은 세대에서의 이동률과 이동의 행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주목하였다. 노년기의 주거 이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에 비하여 낮은 이동률을 나타내고, 전반적인 주거 이동률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동은

17)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에 적용되는 이론들은 시대 별로 Burgess(1925)의 Centric rings 이론, Hoyt(1939)의 Filtering 이론, Rossi(1955)의 life-cycle 이론, Alonso(1960)의 trade-off 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각기 다른 사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현상 설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거이동 현상에 대하여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지닌다(Short, 1978).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낮은 주거 이동률은 다시 말해서 높은 거주 안정성을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는데, Short(1978)는 연령변화에 따른 높은 거주 안정성에 대한 3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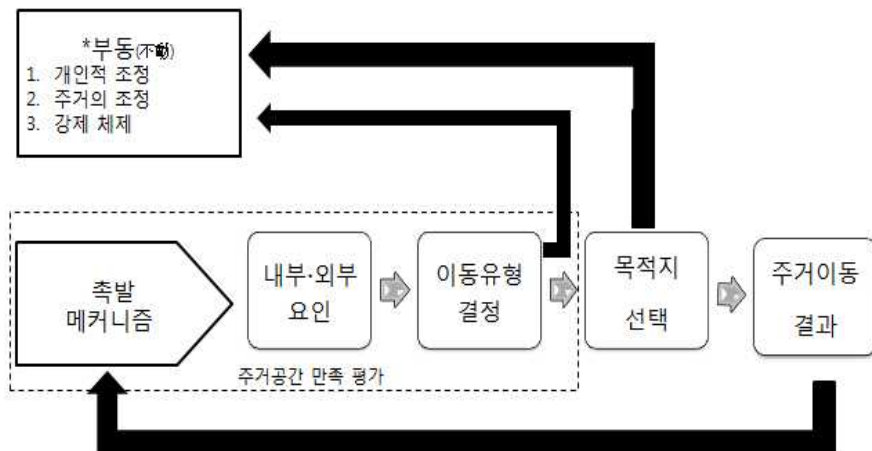
노인 인구집단이 높은 거주안정성을 보이는 첫 번째 원인은 동일한 주거 공간에서의 연령증가와 장기간의 거주는 공간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형성 시키는데 이러한 주거애착 혹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노년기에 은퇴·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을 통하여 더욱 강해지는데 있다(Land, 1969). 두 번째는 생애주기 초기의 인구집단은 노인인구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출산·성장 그리고 출가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공간 요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인구 집단에 비해 빈번한 이동을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선택적 이동률 변화 요인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젊은 연령층의 가구들은 주택의 자가 소유 가능성은 적으면서 공영주택으로의 이동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차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누적해온 고령자 층에게는 그러한 경향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hort, 1978).

이외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노인인구집단은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률을 보인다. 이러한 낮은 주거이동률로 인하여 노년기의 주거 이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으나, 오히려 낮은 이동률을 보이는 노년기의 주거이동은 그 이동 동기와 행태가 젊은 세대에 비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주거 공간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노인인구 집단의 이동행태는 편익이동(Amenity Moves), 조력이동(Assistance Moves), 환경적인 압력(Environmental Push) 등 3가지 행태로 구분 해 볼 수 있다(Wiseman, 1980).

첫 번째, 편익이동(Amenity Moves)은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이동을 말한다. 이러한 이동에는 따뜻한 지방으로의 이동, 활기찬 여가생활이 가능한 고급화된 은퇴공동체로의 이동이 포함되고, 주거유지

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도심으로의 이동과 기존 주거 공간에 대한 불만족 또한 포함된다. 두 번째로 조력이동(Assistance Moves)은 노인인구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이동이다. 대부분 건강상태가 이동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경우인데, 주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상실을 채워 줄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이라 할 수 있다(Wiseman, 1980). 즉, 나쁜 건강상태는 조력이동을 유발하지만 오히려 좋은 건강상태는 편익이동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압력(Environmental Push)으로 인한 주거이동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이동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주거공간에 대한 높은 애착과 안정성을 기본 심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이동률을 보이지만, 높은 주택의 가격을 이기지 못할 경우 외부적 압력을 받다가 결국 퇴출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Wiseman, 1980). 하지만 환경적 압력에 의한 주거이동은 노인인구 집단 뿐 아니라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이주 요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집단의 주거이동 동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Logino, 1979). 이러한 주거 이동 행태는 [그림 II-2]과 같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림 II-2] 이론적 주거이동 메커니즘
출처: Wiseman, 1980, p.145 재구성

Wiseman(1979)을 비롯한 Brown과 Moor(1970)¹⁸⁾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 이주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끊임없이 각자의 거주공간이 그들의 욕구와 열망을 채워주고 있는지 그리고 주거공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산 가치와 외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떤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결과 주거이동이 결정된다고 하였다(Brown & Moor, 1970).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또한 노인인구집단은 다른 연령집단과는 다른 요인들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II-2]의 촉발 메커니즘에서 노인 인구집단이 겪을 수 있는 배출요인(push factors)과 흡인요인(pull factors) 중 다른 연령집단과의 차별화 된 요인들은 주로 생애주기 변화에 의해 겪게 되는 현상들과 결부된다. 기존 주거공간으로부터의 배출요인은 개인의 자립성 상실·배우자의 사망·거주 공간 환경에 대한 불만족 등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주거공간 환경으로의 흡인요인은 은퇴 이후의 생활편의 시설·친구/가족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또래의 성공적 이주 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주거이동을 촉발시킨 배출요인과 흡인요인들에 의해 이동가능성이 열린 이후에는 개인별 내부적 요인(수입 혹은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자원)과 외부적 요인(부동산 시장·시장가격·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영향을 받아 이주유형과 목적지가 선택되게 된다.

18) Brown&Moor(1970) 또한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을 유발하는 배출요인으로 주거공간, 주거비용, 주택의 시설과 형태의 노후와 근린환경, 접근성, 근린지역에 대한 불만족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충족을 위해 이동이 시작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4) 노인의 주거이동과 노인주거선택 특성

앞선 절들에서 주거공간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더욱이 노인들에게는 생활영역의 축소를 경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전경숙(2003)은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¹⁹⁾ 자료를 이용하여 70세 이상의 미국 전체 노인 중 연령·성별·인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출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생활기능²⁰⁾ 감소가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이나 보호시설 입소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 집단의 경우 ‘병원가기’나 ‘자산관리’ 등의 일상생활과 가사활동 어려움이 주거이동과 직결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충기(2008)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노인주택의 잠재 수요인 50~69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주택으로의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건강 악화’와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을 입증하였다. 즉, 고령에 따른 신체·심리 기능 저하는 주거이동과 주거공간 선택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영향요인임이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노인들의 주거조절, 노인들의 생활과 관련한 연구(하춘광, 2006; 전영진, 2008; 박천규, 2009, 최승호, 2009; 이준민·신화경, 2004)들에서도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현상을 바탕으로 논의의 전개를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이정섭(2010)은 출생 코호트 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진주시의 남자인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과 비교·탐색함으로써, 앞선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즉, 생애주기 이론에 따른 가족형성과 확대 단계이후에는

19)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는 동일 표본 내의 생활기능 감소와 주거상황의 변화를 장기간 시간차를 두고 관찰한 연구 중 가장 최근에 실시된 것으로 지금까지 1차(1993년), 2차(1995년), 3차(1998년)의 설문조사가 완료되었고 1차와 2차의 조사의 자료가 공개되었다(전경숙, 2003).

20) AHEAD조사에서 말하는 ‘생활기능’은 다음과 같은 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 BADL(Basic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신체관리 기능
- HADL(Household Activities of Daily Living): 가사노동 기능
- AADL(Advanc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인지적 기능
- LBA(Lower Body Activities): 하체동작 기능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03)

연령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30-39세 무렵에는 높은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횡단면적으로 접근하는 주거이동 모형 설정에 대한 한계를 증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인 인구집단과 이들의 주거이동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목받고 있는 ‘실버타운’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용 주택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노인용 주택으로의 주거이동 영향요인, 노인용 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지향하는 인구집단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구분 등 예비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내부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 주택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지리학에서 Q방법론 활용

Q방법론은 세계현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강조하는 경험적 분석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리학 내에서도 Watt(1999)는 “collective wish images”를 통해 주관적 정치적 정체성과 담론들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Sibley(1995)는 “Geographies of exclusion”을 통해 순수성과 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의식을 물리적 경계로 구분 짓기 위한 지도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많은 지리학자들은 20여 년 이상 지리학 연구에서 주관성과 객관성들의 차이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키고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연구를 해 오고 있다(Robbins & Krueger, 2010). 따라서 객관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관계를 처리 할 수 있는 경험적·해석적 기법인 Q방법론은 유용한 연구 분석 기법이 될 수 있다.

지리학에서 Q방법론의 유용성은 특히 주관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현상에 대하여 접근해야하는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Robbins & Krueger, 2010). 예를 들어, 정치지리에서는 기존의 선입견들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정치 정체성·민족주의·공간성 등이 반영된 공간의식에 대한 질의를 가능케 해 준다(e.g. Keith and Pile 1993; Sharp 1996). 또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에게는 성(gender)과 인종(race)과 관련한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적 관계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여성들의 사회-공간적 정체성과 행태에 대하여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반영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복합적 결합에 의한 여성들의 주관적 경험과 정체성을 연구의 중점으로 삼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었다(Gilbert, 1998).

우리나라 지리학에서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논의들에서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비교적 최근 연구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최충익·정주리(2009)는 홍천군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환경갈등구조를 Q방법론을 적용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관-민 갈등의 집중된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주관적 민-민 갈등구조를 구조화

된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진상현·김두환·허은녕·김현준(2005)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댐건설 이외의 대안이었던 ‘농경지 저류지’ 조성에 대한 장애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서 환경 보전형, 지역 개발형, 지역 고수형, 안전 추구형 등 네 가지 장애요인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의 도출과정과 결과는 단순히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 장애요인 발생과 해결방안 제시 과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의 시도는 이후 농경지 저류지 도입과정에 발생 될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정책수용 과정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와 유사하게, 진상현(2000)은 PQ method를 이용하여 영월다목적댐 사례에 관련 된 여러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 주관적 환경적 가치들을 추출 해 냈다. 연구자는 Q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반 공해운동이나 생활환경운동에서 나타났던 환경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보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강윤희(2007)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 러시아인의 페미니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페미니즘 의식의 공간분포와 이것이 전과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인들의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인식에 미친 변화와 개개인 주관에 의한 페미니즘 인식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기존의 안티-페미니즘 적 태도나 남성주의 적 가부장주의로 이원화 되어왔던 일반적인 견해들 이외의 다양한 인식 유형의 영향요인들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공간현상의 주관성을 다루고 있다가보다는 사회적 현상들이나 기존 연구에서 대체변수로부터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의 대안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즉, 갈등관리 부문에서만 Q 방법론을 적용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연구대상들의 감지되지 않는 심리내적 속성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Q 방법론은 기존의 이론 검증이나 공간상에서 인간의 행동특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주위 환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II. 노인공동생활주택의 제도적 특성

1. 노인공동생활주택 등장배경과 필요성

노인들에게 있어서 집(home)은 지속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안락한 장소임과 동시에 지위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들과 노인들의 연령에 따른 환경지각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공간적 지식과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정반대로 공간적 인지영역이 점차 감소된다(김부성, 1998). 따라서 삶의 터전인 주거공간은 노인들이 지각하는 공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청·장년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노인공동생활주택들은 노인인구 집단 내에서 주거공간이 가지는 공간적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는 데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겠다.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은 오랜 동안 주거(housing)와 보호(care)의 두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발전 해 왔다. 노인주택은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보호주택이 시설화의 반대로 시작된 것만큼이나 시설(institution)과 주택(home)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Higgins, 1989). 시설과 주택의 차이점은 [표 III-1]과 같다.

노인주택 탈 시설화의 목적은 독립적 생활을 가능케 하고 집과 같은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것에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영국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노인주택의 전형이 되었다(Heywood, 2002). 이후 유럽 국가들과 다른 서부 국가들에서 노인주택과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들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힘은 ‘aging-in-place’²¹⁾

21) aging-in-place의 개념적 특성은 다음의 5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 ① 보호(care)기능은 전통적 주거지 내에서 제공되는 것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는 특정 주택의 노인들을 위해서 공급되어야 한다.
- ② 보호기능은 표준화 된 방식이 아닌 개인 요구에 맞춰져 있고, 노인들의 특정한 욕구들을 모두 맞춰 줄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한 노인들의 강한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ging-in-place는 노인들이 이제껏 살아온 친숙한 지역과 주거 공간에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바람에 의해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책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장려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신규 노인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박신영, 2003).

[표 III-1] 시설과 주택의 차이점

항목	시설(institution)	주택(home)
1	공공 공간으로 프라이버시의 제한	개인적 공간으로 가끔 프라이버시의 제한
2	낯선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	거의 혼자 살거나 낯선 사람과 거주하지 않음
3	전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근무	일반적으로 직원은 없고, 가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이 방문
4	형식적이고 친밀감 부족	비 형식적이고 친밀감 높음
5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음	가족 간의 성관계 허용
6	다른 기관이 소유	거주자가 소유 또는 임차
7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대규모	다양한 크기이지만 대부분 소규모
8	선택권과 개인적 자유가 제한	선택권과 개인적 자유 행사
9	(사람·공간 등) 낯섬	(사람·공간 등) 친밀함
10	공동생활	개인적 생활

출처: Higgins, 1989

- ③ social service(육체적 운동 활동·레크레이션 활동·교육·상담 등)기능 또한 기존에 있던 시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해당 커뮤니티 노인들의 요구에만 따로 맞춰져 있다.
- ④ 주거기능은 더 이상 보호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다. 아파트 식 거주 공간의 규모와 편의시설들이 일반적인 주택시장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들과 비교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⑤ 주거기능(특히, 욕실과 부엌)은 노인들의 이동성 문제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 조정은 특정 노인주택에서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주택시장에서의 주요한 흐름이다 (출처: P.P.J.Houben, 2010).

2. 노인 주거복지의 국가별 정책 변천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 congregate housing)이란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아직 요양원(nursing home)에 갈 필요가 없는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유형 중의 하나로 접근성 기준에 맞게 지어지며, 공유공간과 관리인이 있어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일이나 사교·여가 프로그램 제공, 생활지원 서비스 및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홍형욱, 2004).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거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실버타운’²²⁾으로 인식해 오고 있는데,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많은 곳에 요양시설이 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거주자가 100가구 이상인 경우가 많아 시설(institution)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의 노인공동생활주택과 완벽하게 동일한 유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 선진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 유형과 정책 변화

1999년 UN에서는 “세계 고령자의 해”로 선포하면서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기본원칙 하에 모든 세대가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의 조성 and 세대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의 역사가 빠른 영국·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60년대 노인층을 위한 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늘날까지 증가해 오고 있는 노인인구의 각기 다른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통해 노인을 위한 구조적·제도적·조직적 측면의 기틀을 확고히 해 오고 있다. ([표 III-2] 참고)

22)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용어이다(한문희, 2010).

우리나라에서의 실버주택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0).

[표 III-2] 국가 별 노인공동생활주택 역사적 특성

국가	정책 변화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주택법 제정으로 민간에 의한 노인주택 공급 • 1972년 민간임대주택 거주 노인 임차료 보조 • 1980년대 고령자의 시설중심 보호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택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서비스 아파트를 공급 • 1994년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이 '일상을 자신의 집에살기'라는 장애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평범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주택법 개정으로 고령자용 공공주택 공급 • 1965년 노인복지법 제정 • 1978년 고령자용 집합주거단지 지원제도 시행 • 현재 자가 노인복지 신축 시 100% 용자 • 현재 노인전용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 설치 공급 시 최장 40년간 저리 용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 1964년 노인세대를 위한 공영주택 • 1978년 고령자와 동거 시 할증용자 혜택 • 1989년 골드플랜 : 사회보장체도를 개편하여 주거지원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전환 • 1990년 시니어 주택 •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국가	제도적 구조
영국	<p><공급·관리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은 주택법에 의함 ▶ 주거 서비스 공급은 국민보건서비스, 지역 사회 보호법에 의함 <p><건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조례 Part M <p><관리감독></p> <p>ARHM 관리실천규약, 옴브즈만 서비스</p>
미국	<p><공급·관리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은 주택법에 의함 ▶ 주거서비스 공급은 집합주거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사회보장법 등에 의함 <p><건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함 <p><관리감독></p>

	▶ 시설인가정기점검 위반시 면허취소, 음브즈만 제도
일본	<공급·관리법률>
	▶ 주택공급은 건설교통성에 의함
	▶ 서비스공급은 후생노동성에 의함
	<건축기준>
	▶ 장수사회대응 설계지침
	<관리감독>
	▶ 실버하우징은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니어주택은 인증제도에 의함

국가	조직적 구조
영국	<공급·관리주체>
	▶ 공공(지방자치단체, HA)과 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개별주호의 응급 벨이 지역 통제 센터와 연결
미국	<공급·관리주체>
	▶ 영리·비영리 민간주체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 노인집합주택 지역공급자가 방문하기도 함, 대규모로 단지 내에서 서비스 공급
일본	<공급·관리주체>
	▶ 공급은 지자체·공단·공사·민간에 의함
	▶ 관리는 (재)시니어라이프, 민간에 의함
	<서비스 전달체계>
	▶ 실버하우징의 경우 데이 센터에서 LSA(생활지원사) 파견
	▶ 시니어주택의 경우 단지 내 일괄서비스 제공 혹은 관리위탁 운영

국가	물리적 구조
영국	<개별 주호>
	▶ 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
	<공용공간>
	▶ 라운지, 손님방, 공동세탁실
	<시설·설비>
	▶ 응급경보장치, 생애주택설계
미국	<개별 주호>
	▶ 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
	<공용공간>

	▶ 공동거실, 공동식당, 세탁실, 관리인실, 각종 활동실 <시설·설비> ▶ 응급경보장치, 베리어프리
일본	<개별주호> ▶ 원룸형, 1침실형, 2침실형 <공용공간> ▶ 실버하우징: 관리인실, 집회실 ▶ 시니어주택: 각종 활동실이 다양함 <시설·설비> ▶ 응급경보장치, 접근성 기준

출처: 김용택(2001), 이영환(2001), 최성재(2001), 유병선(2005) 재구성

각 국가들에서 노인공동생활주택은 각기 다른 용어로 불리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sheltered housing(보호주택)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retirement housing(은퇴주택)이 있다. 보호주택은 1962년 ‘반(反)노인 홈’ 이론에 근거를 두고, 노인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over care)를 실시하지 않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후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보호주택이 무주택 저소득층 노인들을 입주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고소득 노인층의 노인용 고급주택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은퇴주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은퇴주택의 대상자들은 주택수준보다는 자산의 보전, 의료보장 등의 부가 서비스에 많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영국에서 은퇴주택은 보호주택과는 대조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congregate housing(노인집합주택)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independent living(독립생활주택)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스웨덴이나 영국 외 다수 유럽 국가들과 달리 노인이나 장애인 등 신체기능 약화에 대비하는 배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노인용 집합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지만, 그마저도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미국은 민간부문에 의한 노인용 주거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노인 홈(Retirement House)과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이 발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은 주택 제공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

주대상²³⁾을 기준으로 silver housing(실버하우징)과 senior house(시니어주택)로 공급되고 있다(박재간, 2002; 신화경, 2008). 실버하우징과 시니어주택은 민간에서 설립한 유료 노인홈을 그 근간으로 한다. 유료 노인홈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조성 될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엄밀히 노인복지시설이 기보다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식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써 거주에 드는 비용은 전액 입소자가 부담하게 된다(안준영, 2011).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관련 정책들에 비해 약 20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비교 고찰을 통해 우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초기에는 빈곤한 노인계층을 위한 시설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후, 공영주택법과 노인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노인주거 정책들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로 그 대상을 확장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상태·경제상황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들이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안준영, 2011).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주거 관련 정책 비교는 다음 [표 III-3]과 같다.

23) 시니어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 시 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고, 실버하우징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강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고령자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박재간, 2002).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 마련
2001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	2005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사업 실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2	소규모 생활단위형 특별 양호노인홈 제도화	2006	노인주거개선사업실시, 고령친화 모델지역사업 실시
2007	주택확보 필요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법률 제정		

출처: 안준영, 2011

2) 국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과 정책 변화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에서 노인주택이란 노화현상을 고려하여 특별히 계획·설계된 주택들을 포함하고, 노인 인구집단 또한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주거대안이 다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신영숙, 1998). 한편, 유병선(2005)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주택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인주택을 ‘실버타운’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34%로 1순위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비롯한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에 대한 인식과 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버타운의 개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상 노인 주거 복지시설²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의 잦은 혼용은 노인주택에 대한 혼란스러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노인복지주택들도 중 많은 수가 법적 틈새²⁵⁾를 이용하여 노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주택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식이 체계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4) 2008년 4월 4일자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복지주택에는 개정 전 실비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32조 규정).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들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다.

25) 2008년 8월 4일(개정법을 시행일)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개정법을 시행에 따라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례는 2011년 3월 3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을 부칙에 제 4조의 2 및 제 4조의 3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제 4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 33조의2제3항 및 제 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제 4조의 3(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

: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 3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 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한편 우리나라는 가족부양 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였기 때문에 노인 복지 부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식 또한 더디게 형성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시기적으로 살펴 보면, 1960~70년대에는 구체적인 노인세대에 대한 주택정책이 존재하지 않았고,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9년 노인복지법 1차 개정으로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었고, 1997년 노인주거복지주택 사업에 대하여 민간업자에게 허가를 내주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노인주택문제에 대한 법·제도·구조적 기틀을 단단히 하게 된 시기로는 2000년대 고령화 사회(고령화율7.22%)로 진입하게 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강인순, 2004).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 되는데, 법률 상 노인공동생활주택과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의 노인주택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겠다. ([표 Ⅲ-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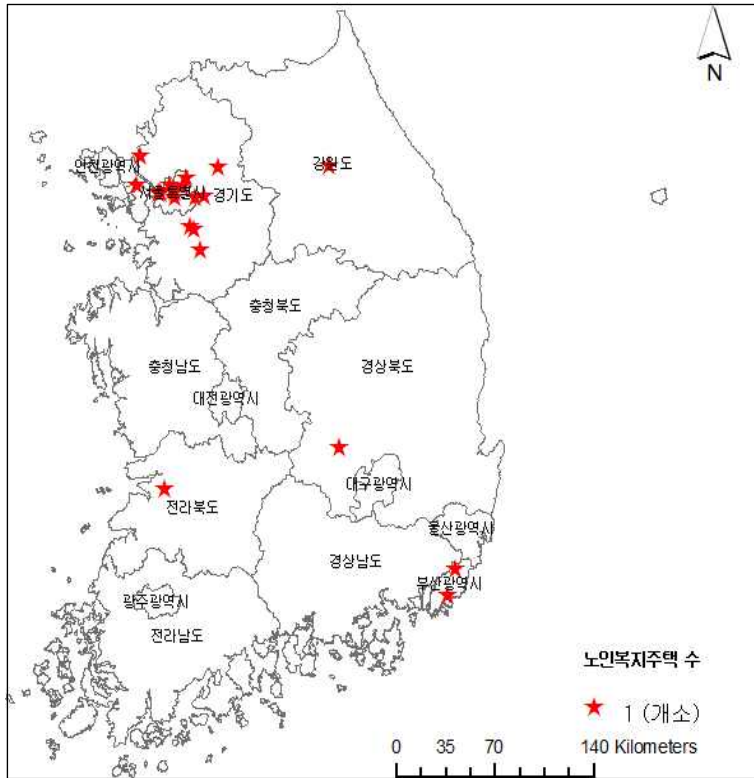
[표 Ⅲ-4]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 시설의 종류

시설	설치목적	이용(입소)자격 및 특성	설치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0세 이상의 자 -보증금(종신형/임대형) + 월 생활비 납부/급식제공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시설규모: 입소정원 5인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정형 그룹 홈 (재가와 시설의 중간형태)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가능으로 정서적 안정 -5~10인 정도로 구성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분양, 임대 + 월 생활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 -사업주체: 건축업체, 개인 -시설규모: 30세대 이상	''

출처: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복지시설 현황 연구자 구성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유형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구분해 오고 있다. 노인복지주택 유형 구분 기준으로 첫 번째는 입지 조건에 따른 것으로 도시형·도시근교형·전원휴양형으로의 구분과 주거유형에 따른 단독주거형과 공동주거형, 마지막으로 사업방식에 따른 종신형·임대형·분양형·회원권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서강훈·정영일, 2008). 이 세 조건들 가운데 많은 연구들은 대동소이하게 입지에 따른 유형을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입지를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 유형을 구분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구체적인 용어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한문희, 2007). 먼저,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은 지역의 대도시권 내에서 대도시 중심과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중심부에 입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라면 서울의 대도시권 내에서가 아닌 대전의 대도시권 내에서의 입지를 파악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교형 노인주택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시근교형’이라 명명한 용어상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교(郊, suburb)의 의미를 강조하여 도시의 배후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근교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원생활의 장점과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장소에 입지한 주택을 전원형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현황을 표현하면,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의 수도권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1] 참고)



[그림 III-1] 노인복지주택 분포도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또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유당마을’로 근교형에 해당하였다. 초기의 노인복지주택들은 유당마을과 같이 대부분 농촌이나 근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표 III-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서울이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노인복지주택의 선호 입지 변화는 부양의식의 변화, 자녀와의 별거 선호, 노인의 욕구 변화, 노인의 경제력 향상, 노인복지 예산부족,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에 따라 도심형 노인복지주택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시장성을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III-5]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대 별 현황

종류	시설	2007		2008		2009		2010	
		시설 수	입소원	시설 수	입소원	시설 수	입소원	시설 수	입소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384	16,579	306	11,520	285	11,561	300	11,906
	노인공동 가정생활	-	-	21	177	56	438	75	618
	유료노인 복지주택	14	3,565	20	5,645	19	2,354	22	4,746
	소계	398	16,579	347	17,342	360	14,353	397	17,270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표 III-6] 우리나라 전국 노인복지주택 현황

지역	개소	시설 명(세대 수)	총원
서울	10	골든펠리스(83), 정동삼림원(98), 하이원빌리지(85), 노블레스타워(239), 시니어캐슬클라시온(137), 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142), 후성누리움(51), 중앙하이츠아쿠아(219), 서울시니어스타워(308), 그레이스힐(182)	1,544
부산	2	힌돌실버타운(220), 낙원대실버타운(63)	283
인천	1	보미골드리즌빌(216)	216
경기	6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249), 더 헤리티지(390), 명지엘펜하임(336), 벽산블루밍더클래식(220), 수동시니어타운(148), 유승양브와즈(1,080)	2,423
강원	1	아름다운은빛농장(30)	30
전북	1	부영노인복지주택(150)	150
경북	1	월명성모의집(100)	100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

IV.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행태 분석

1. 인구학적 특성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성별·학력 등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와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공간과 커뮤니티의 속성을 예측 해 보고자한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기본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남자 44.4%, 여자 56.6%로 여자 노인이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하였고, 80대에 속하는 노인이 53.3%로 가장 많았다. 학력부문은 전문대 졸 이상이 9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구 대상자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이상은 6.7%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평균 연령이 베이비 붐 세대보다 훨씬 이전 세대라 할 수 있는 81~83세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90%이상이 전문대 졸 이상이라는 것은 해당 세대에서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집단이라고 추측 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대상자들이 현재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생활수준과 건강상태를 질의²⁶⁾에 대하여, 57.8%의 대상자가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75.6%는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중층~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구집단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각자의 재력을 기반으로 ‘노인용 주택’ 상품을 소비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6)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집단의 경우, 일정한 정기소득이 없는 사람들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지표로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주관적 생활수준’이라는 질의를 통해 개인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IV-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20	44.4
	여자	25	55.6
	합계	45	100
연령	60대	0	0
	70대	17	37.8
	80대	24	53.3
	90대	4	8.9
	합계	45	100
학력	무학	0	0
	초등 졸	0	0
	중등 졸	0	0
	고등 졸	3	6.7
	전문대 졸 이상	42	93.9
	합계	45	1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7	15.6
	좋음	19	42.2
	보통	17	37.8
	나쁨	2	4.4
	매우 나쁨	0	0
	합계	45	100
주관적 생활수준	상층	11	24.4
	중상층	17	37.8
	중층	17	37.8
	중하층	0	0
	하층	0	0
	합계	45	100

이러한 특성을 연구지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평균 연령은 N 타워 노인집단이 81세, 분당타워 노인집단이 82세로 유사하고, 두 유형 모두 80대가 각각 11명, 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60대에 속하는 대상자는 0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생활수준은 주택 별로 차이를 가졌다. 먼저, N 타워 노인 집단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 좋음’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하여서도 ‘상층’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47.6%로 높았다. 반면, 분당타워의 경우 ‘보통’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상층’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누린다는 응답자는 4.2%로 N 타워의 노인집단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N 타워 노인집단이 주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의 집단 별 차이는 각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표 IV-2] 연구지역의 주관적 건강상태·생활수준 비교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평균연령		81.4(세)	82.6(세)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5 (23.8%)	2 (8.3%)
	좋음	9 (42.9%)	10 (41.7%)
	보통	6 (28.6%)	11 (45.8%)
	나쁨	1 (4.7%)	1 (4.2%)
	매우 나쁨	0	0
합계		21(100%)	24(100%)
주관적 생활수준	상층	10(47.6%)	1(4.2%)
	중상층	9(42.9%)	8(33.3%)
	중층	2(9.5%)	15(62.5%)
	중하층	0	0
	하층	0	0
합계		21(100%)	24(100%)

필연적으로 행동능력 감퇴를 경험하는 노인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 이상으로 교통이나 취미·오락·관광을 위한 편의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등과의 높은 접근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N 타워의 사회적 환경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타워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N 타워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만 아니라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편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노인들이 주거공간 변화로 인한 적응기제(adjustment mechanism)²⁷⁾ 작용에 따라 겪게 될 정서적 혼란이 도심을 벗어난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에 비하여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소비를 위해서는 높은 분양(임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 반면, 분당타워와 같이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근교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대중교통과 도시 시설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임대)가격으로 유사한 수준의 주거공간 점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 내부에 옥외 공간 형성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지루함과 권태로운 일상생활에 활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27) 적응기제(adjustment mechanism)는 프로이드(Freud, S)의 방어기제 이론과는 달리 자아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제시 없이, 단순히 행동 이후 결과적인 환경에 대한 적응방법을 말한다(이철수, 2006).

2.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 행태

앞서 연구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근로소득이 없지만 중·상층 이상의 생활수준과 보통 이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80대 노인인구집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약 30% 이상의 연구 대상자들이 ‘강남구’를 이전 거주 지역이라 응답한 것([표 IV-3] 참고)에 의해 대변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들은 대부분 아주 고가의 분양가와 생활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홍형욱, 2005), 강남구²⁸⁾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높은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주현(2008)의 연구²⁹⁾에서도 입증 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은 일정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생애주기에 진입 한 이후에, 다른 재화와 달리 고가(高價)이면서 투자의 고정성이 높은 노인복지주택을 선택 한 것을 미루어 보아 평균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춘 노인집단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부분이였다. 또한 자녀의 결혼과 분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경험하는 노인집단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노인인구 집단 내에서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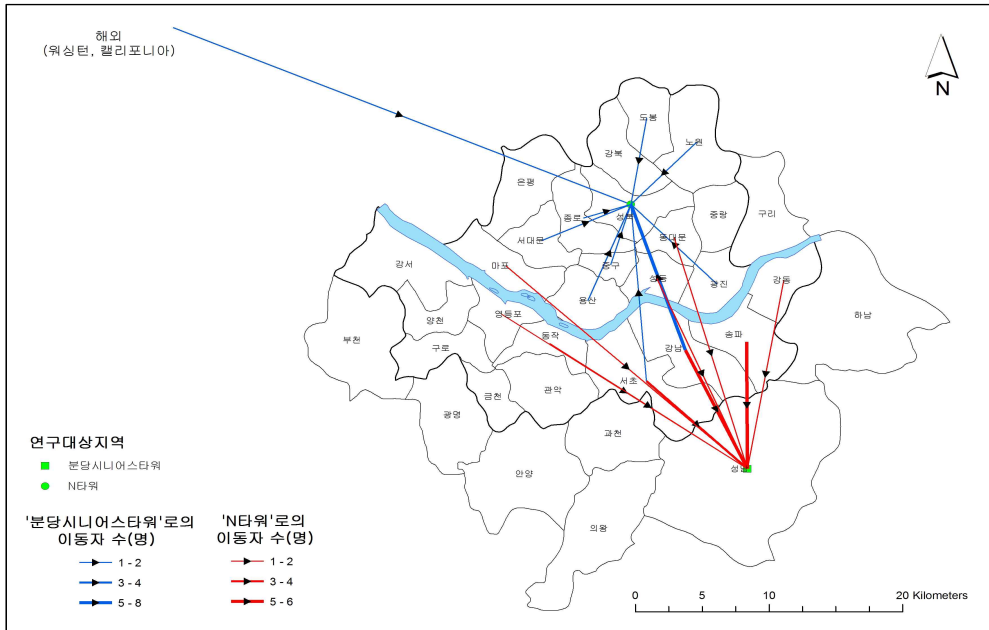
한편, 각 노인복지주택 응답자 개개인의 주거이동 경로는 [그림 IV-1]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표본이 45명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지만, 응답자들의 결과만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강남구·서초구·분당구 등 강남 3구에서의 이동이 가장 크고, 분당타워의 경우 특히 강남 3구로부터의 이동비율이 50% 이상이다. 둘째, 도심에 위치한 N타워의 경우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한강’을 경계로 강북에 위치한 자치구들로 부터의 주거이동 경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8) 2013년 기준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75.9%로 서울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1.8%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자치구이다(출처: 서울 통계청, 2013).

29) 조주현·전영진(2008)은 서울시 강남지역 3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타운 예비수요자의 입주의향 결정요인 분석’을 실행하였다. 총 350부 배부 후, 수집된 280부를 분석한 결과 77.1%(216명)이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출처: 조주현·전영진, 2008).

[표 IV-3] 연구 대상자들의 이전 거주 지역

구분	이전 거주 지역	빈도(%)
N 타워 (빈도, %)	강남구	8(38%)
	서초구	2(9.5%)
	종로구	2(9.5%)
	광진구	1(4.8%)
	중구	1(4.8%)
	서대문구	1(4.8%)
	도봉구	1(4.8%)
	노원구	1(4.8%)
	용산구	1(4.8%)
	성북구	1(4.8%)
	해외	2(9.5%)
합계		21(100%)
분당 타워 (빈도, %)	강남구	6(25%)
	송파구	5(20.8%)
	서초구	4(16.7%)
	분당구	3(12.5%)
	성동구	1(4.2%)
	동작구	1(4.2%)
	강동구	1(4.2%)
	영등포구	1(4.2%)
	동대문구	1(4.2%)
	마포구	1(4.2%)
합계		24(100%)



[그림 IV-1]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지역 이동

본 절에서는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과정을 탐색 해 봄으로써,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물리적 환경 변화로 인한 행태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적 과정을 통하여 노인인구 집단에게 주거공간이 가지는 중요성까지 도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은 다음 [표 IV-4]와 같이 정리된다.

두 노인복지주택의 연구 대상자들 모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은퇴’를 주거이동이 촉발 된 시기와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복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이 강한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평균 은퇴연령이 52.6세임을 밝혔는데, 이를 본 절의 응답과 비교할 경우 ‘은퇴’라는 life event가 주거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은퇴 이후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이동여부를 고민 해 본다는 해석 또

한 가능하다. 즉, 노인인구집단의 경우 직장을 잃고 퇴직함에 따라서 직장과의 거리 중요성이 낮아지고 높은 주거비용 지불 능력 하락 등에 따라서 주거이동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한편, 주거이동 목적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증가한 여유시간과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쇠약을 보완 해 줄 만한 주거공간을 탐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연령층의 문화·교양·취미 등을 존중하는 공간 마련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화된 생활영역에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청·장년이나 청소년들은 직장과 학교 등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시간대가 많은 반면, 노인들에게는 주거공간이 주요한 생활 터전(박재간, 2002)이 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주택 별로 응답자들의 이동 요인을 살펴보면, N타워의 경우 50%이상이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분당 타워의 응답자들은 '노화불안으로부터의 보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4] 연구지역의 주거이동 과정 비교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입주 평균연령		78.9(세)	76.8(세)
입주 시기	은퇴 이후	12(57.1%)	17(70.8%)
	자녀 분가 후	2(9.5%)	1(4.2%)
	의료적 도움이 필요 할 때	3(14.3%)	2(8.3%)
	배우자 사망 후	3(14.3%)	4(16.7%)
	외로울 때	1(4.8%)	0
	기타	0	0
합계		21(100%)	24(100%)
이주요인	자녀의 권유	1(4.8%)	3(12.5%)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11(52.4%)	6(25%)
	가족구성원의 변화	0	2(8.3%)
	유사 연령 간 커뮤니티	2(9.5%)	1(4.2%)
	노화불안으로부터의 보호	3(14.3%)	12(50%)
	주변 환경이 노인에게 적합	4(19%)	0
기타	0	0	
합계		21(100%)	24(100%)

이주계획	예	3(14.3%)	3(12.5%)
	아니오	18(85.7%)	16(66.7%)
	잘 모르겠음	0	5(20.8%)
합계		21(100%)	24(100%)

또한 연구 대상자들은 대부분 현 주거공간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에 대하여 만족하기 때문에 미래의 주거이동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표하였다.(표 IV-51 참고)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당히 강해지고, 행동이나 사고에 있어서도 경직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관습적인 옛날 방법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원윙희, 2009).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하여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연구 대상자들은 변화된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미래의 주거이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N타워의 경우 ‘위치적 이점’과 ‘주거이동의 복잡성’을 기타 요인으로 꼽은 반면, 분당타워의 응답자들 중에는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 이용’을 위해 주거 이동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 표출은 N 타워의 응답결과와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주택의 입지’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모든 응답자들의 이전 주거 지역은 도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들이었으나, 분당타워의 경우 N 타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 해 줄 만한 시설과 기관의 거리 또한 상당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분당 타워의 몇몇 거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조정감 제한³⁰⁾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에게 더 큰 고립감과 우울증과 무력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주거이동 계획에 있어 긍정적 입장을 보인 6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을 선택한 것을 미루어 보아 노인들의 주거이동에 정서적 측면의 영향력을 살펴 볼 수 있었다.

30) 노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울증이나 무력감, 신체적 쇠약은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서적·인식적·의식적인 반응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정 해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즉,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self-esteem)은 약 57%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부여되곤 한다(원윙희, 2009).

[표 IV-5] 연구지역 별 이동계획 영향 요인

구분	N 타워(빈도,%)	분당 타워(빈도, %)
이동 계획(긍정)	임대 계약 만료	0
	한적한 전원생활/ 도시기반시설이용	2(8.3%)
	시설환경 불만족	0
	비싼 관리비용	0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 (감정적 측면)	1(4.2%)
	기타	1(4.8%)
이동 계획(부정)	위치적 이점	2(9.5%)
	주택 이미지 만족	0
	제공되는 서비스 만족	13(54.2%)
	형성된 커뮤니티 유지	1(4.2%)
	자녀들의 요구	2(8.3%)
	기타	3(14.3%)
합계	21(100%)	19(79.2%)

3. 주거행태(residential behavior) 변화

본 절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소비 기준과 생활행태 변화와 같은 주거행태 변화를 탐색함으로써, 사회활동 영역이 축소된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으로의 물리적 공간 변화가 그들의 일상과 주거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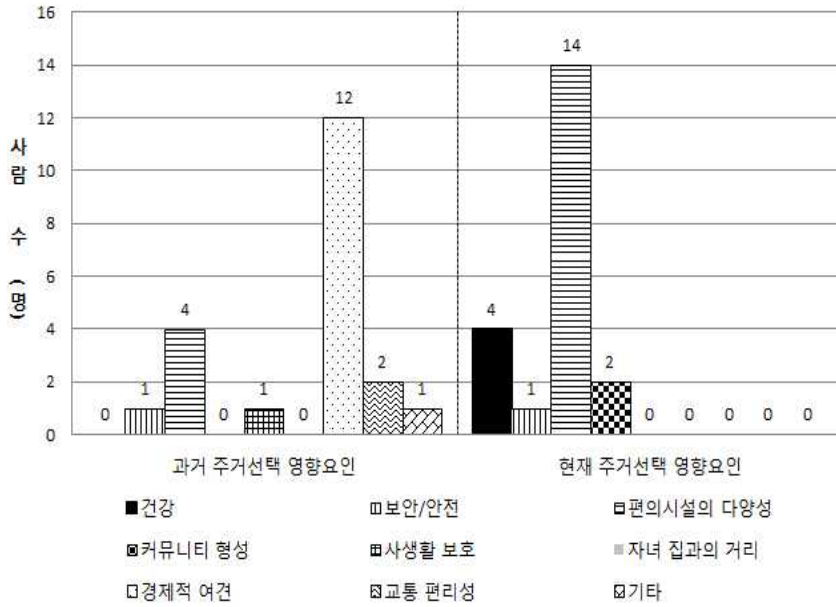
1) 주거소비 행태 변화

다음 [그림 IV-2]와 [그림 IV-3]은 노인복지주택 각각의 주거소비 시 결정 기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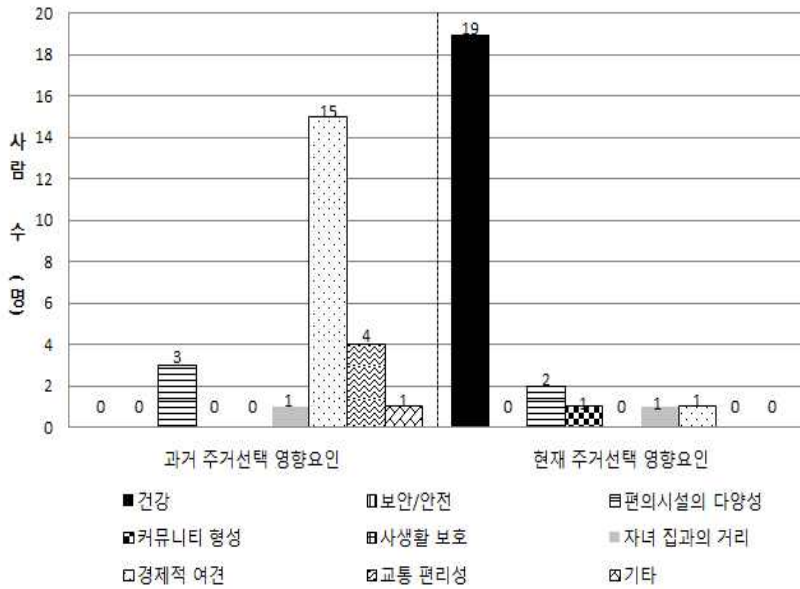
먼저 [그림 IV-2]는 도심에 위치한 N 타워의 응답자들의 결과이다. N 타워 응답자들 중 약 57%가 과거의 주거공간 결정 기준은 ‘경제적 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현재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지 결정 시에는 약 66.7%의 대상자가 ‘경제적 여건’보다는 ‘편의시설의 다양성’이 주거소비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분당타워 응답자들은 [그림 IV-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 58.3%의 응답자가 ‘건강’이 현재 주거소비 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동일한 주거형태를 가지는 N 타워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전 거주지에서의 주거소비 기준은 ‘경제적 여건’으로 동일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소비 기준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였던 ‘경제적 여건’이 ‘편의시설의 다양성’이나 ‘건강’ 등의 요인에 우선순위를 내주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집단의 주거공간으로부터 특정 부분을 보강하고자하는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주택가격’³¹⁾이라는 당연한 결과와도 상반됨으로써 노인복지주택 연구 대상자들의 특수한 이동요인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31) 2008년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매년 거주지 이동을 하며, 이동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유형’, ‘교통여건’, ‘주택내부시설’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그림 IV-2] 주거소비 기준 변화(N 타워)



[그림 IV-3] 주거소비 기준 변화(분당 타워)

2) 주거생활 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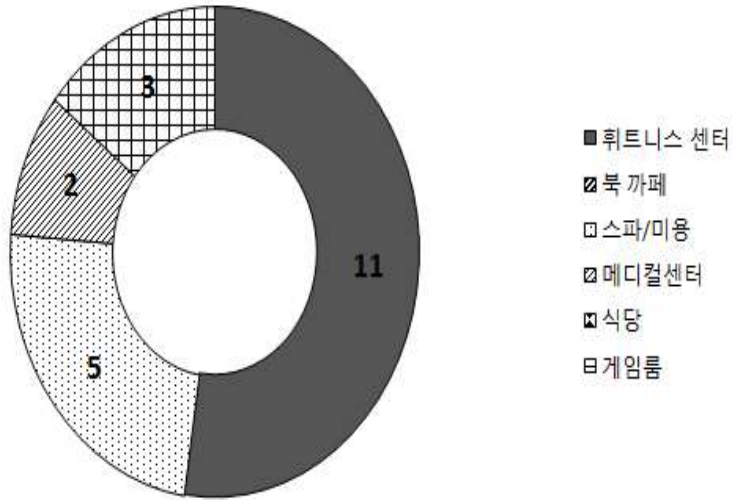
앞서 노령에 따른 사회활동 영역 감소와 신체적 기능 저하를 주거공간 으로부터 보충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의 견해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 결과 주거공간 변화에 따른 생활행태 변화 여부를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IV-4]와 [그림 IV-5]는 응답자들이 N타워와 분당타워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총 8개의 범주³²⁾ 중 모든 응답자들 중 40%가 ‘휘트니스 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꼽았다. 이어서 약 22.2% 응답자가 ‘게임 룸’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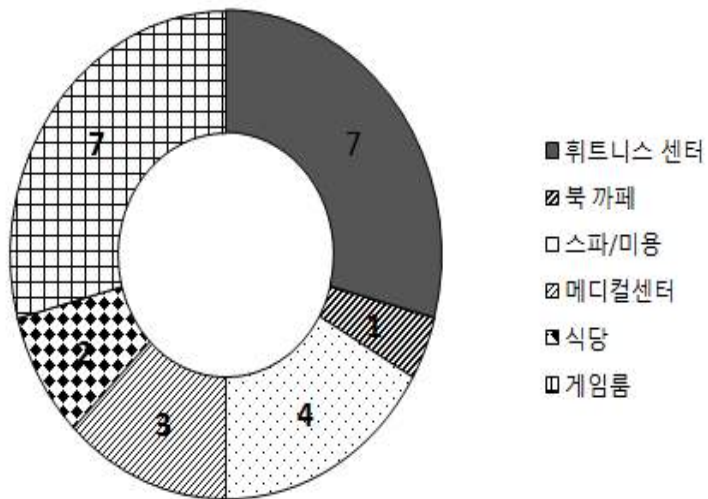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물은 ‘주거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관한 질의 ([표IV-6]참고)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생활행태 변화에 대한 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모든 응답자 45명 중 82.2%가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과거의 주거 단지 내에서는 ‘개인 활동(TV/독서 등)’을 선택한 반면, 현재 노인복지주택에서는 44.4%가 ‘운영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였다. 즉, 주거공간 환경의 구성방식이 노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영역을 주거 단지 내로 확장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은퇴와 노화에 따른 주거소비 기준의 변화와 주거생활 행태 변화의 상관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32) 설문 문항에서 제시한 8개의 범주는 ①휘트니스 센터 ② 북 카페 ③ AV룸(극장) ④게임 룸 ⑤스파/미용 ⑥ 메디컬 센터 ⑦ 식당 ⑧ 기타 등으로 N타워와 분당 타워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다.



[그림 IV-4] 주거 단지 내 활동변화(N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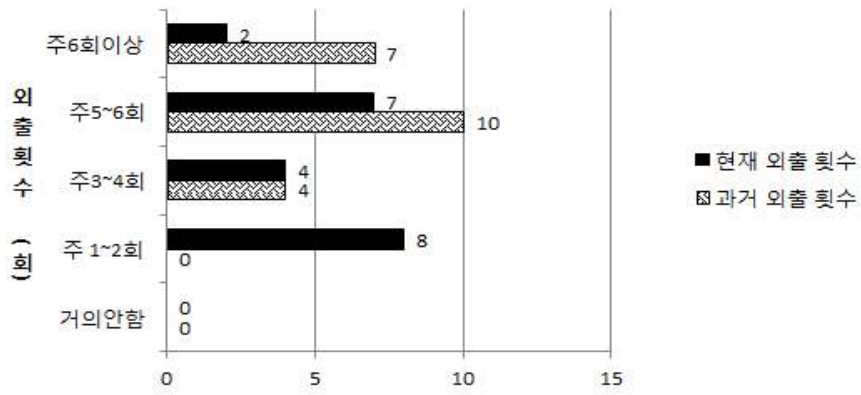


[그림 IV-5] 주거 단지 내 활동변화(분당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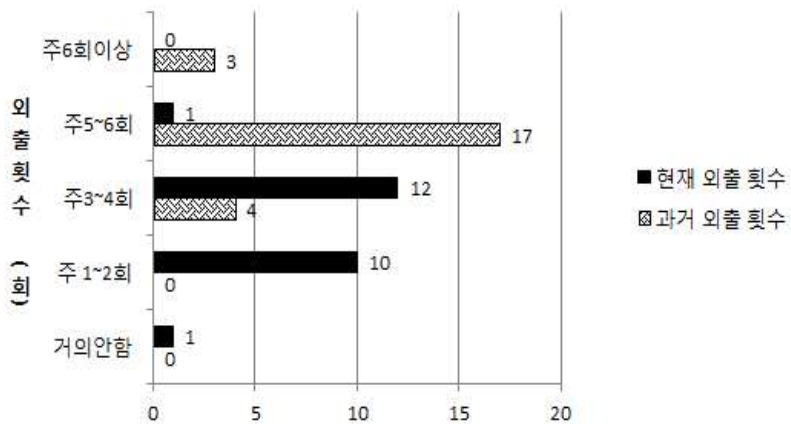
[표 IV-6] 주거단지 내 활동 변화

주거단지 내 많이 하는 활동		N타워		분당타워	
		과거 (빈도/%)	현재 (빈도/%)	과거 (빈도/%)	현재 (빈도/%)
활동 유형	이웃들과 담소나누기	0	3 (14.3%)	1 (4.2%)	6 (25%)
	개인 활동 (TV/독서 등)	18 (85.7%)	6 (28.6%)	19 (79.2%)	2 (8.3%)
	운동	2 (9.5%)	4 (19%)	4 (16.7%)	4 (16.7%)
	운영 프로그램 참여	0	8 (38%)	0	12 (50%)
	기타	1 (4.8%)	0	0	0
합계		21 (100%)	21 (100%)	24 (100%)	24 (100%)

하지만 일부 노인집단의 경우 주거공간의 환경구성과는 상관없이 과거 주거공간에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외부와의 소통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생활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외출 횟수변화에 대하여 N타워의 응답자의 약 33%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주하기 전과 유사한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은 대부분 N 타워의 응답자들의 일부일 뿐, 대부분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이동함에 따라 감소된 외출횟수를 나타내고 있어 주거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신체적 기능저하와 더불어 노인들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6, 7]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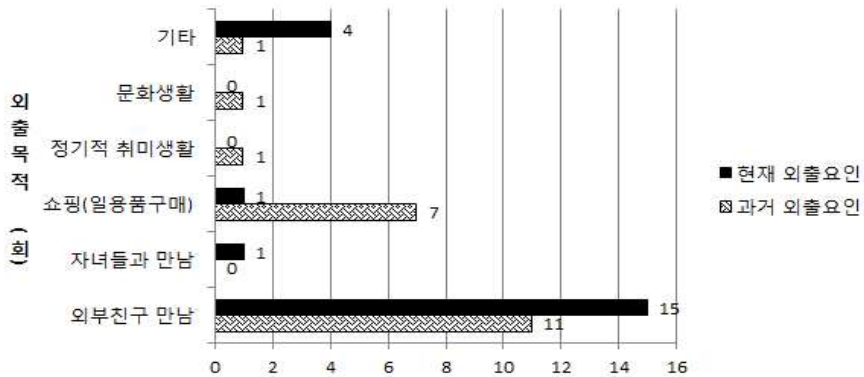
[그림 IV-6] 외출 횟수 변화(N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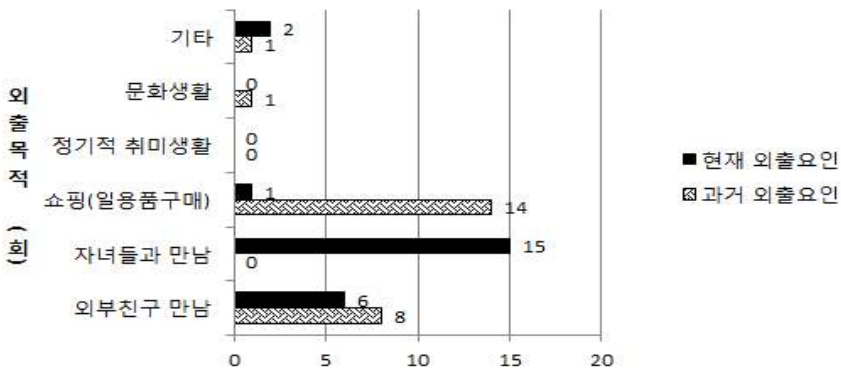
[그림 IV-7] 외출 횟수 변화(분당 타워)

한편, 외출목적과 외출 시 이동수단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IV-8, 9] 참고)

먼저 N 타워의 응답자들은 ‘외부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외출목적에 변화가 없었으나, 분당타워 응답자들은 과거에는 주로 ‘쇼핑(일용품구매)’을 위해 외출하였고, 현재는 주로 ‘자녀들과의 만남’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하였다. 분당타워 응답자들의 외출목적 변화는 현재 주거공간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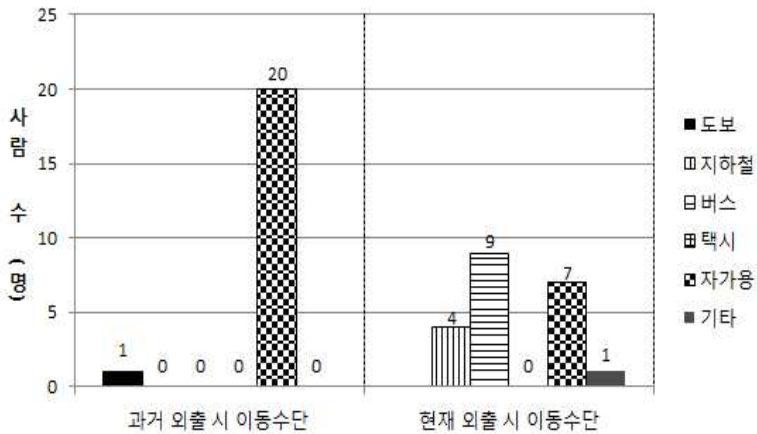


[그림 IV-8] 외출 목적 변화(N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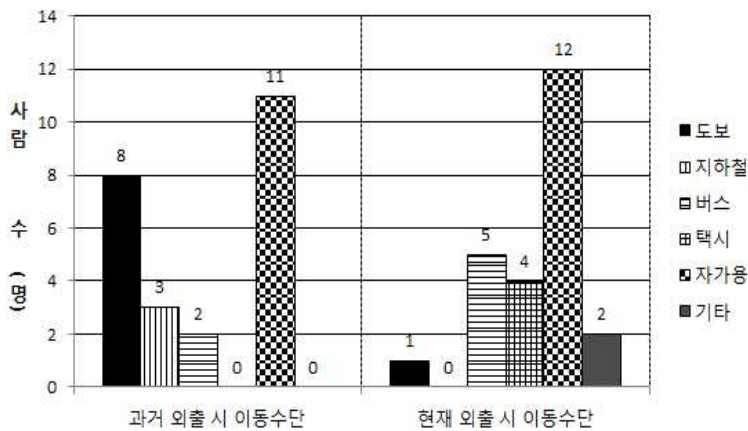


[그림 IV-9] 외출 목적 변화(분당 타워)

또한 외출 시 N 타위의 응답자들의 경우 버스(42.6%)와 지하철(33.3%)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분당타위의 응답자들은 50%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11] 참고) N 타위가 위치한 곳은 지하철을 비롯한 8개의 간선버스와 6개의 지선버스 노선들이 도보 10분 거리 내에 분포하고 있어 분당타위에 비하여 상당히 교통편의 시설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각 노인복지주택의 입지가 가진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극명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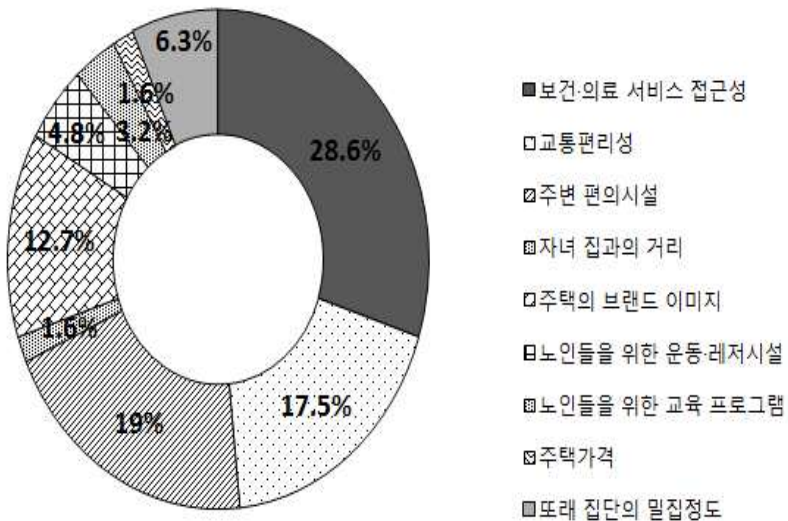


[그림 IV-10]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N 타위)



[그림 IV-11] 외출 시 이동수단 변화(분당 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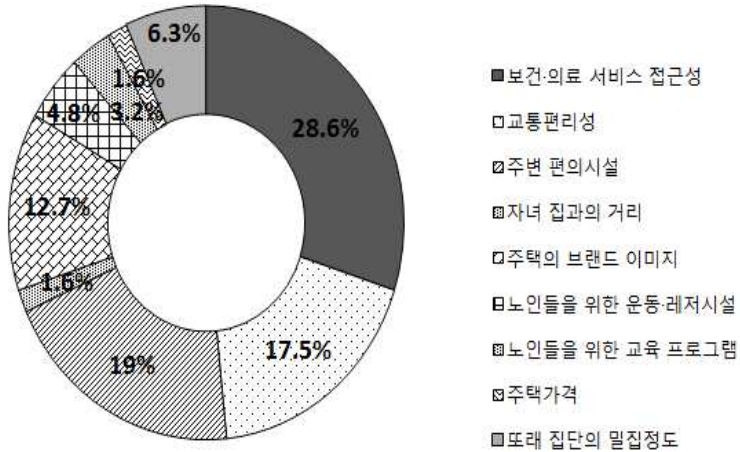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약화 혹은 심리적 박탈감을 주거의 입지 혹은 주거 공간으로부터 보상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통해 실현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노인들이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³³⁾에 대하여 대상자들의 절반이상이 노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출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림 IV-12, 13] 참고)



[그림 IV-12] 노인들의 주거 선택 요건(N 타워)

33) 노인들이 이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건들에 대한 질문의 문항은 총 14개 요건들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적 수익측면 ②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③ 교통 편리성 ④ 주변 편의시설
- ⑤ 자녀 집과의 거리 ⑥ 주택의 브랜드 이미지 ⑦ 자치구의 생활수준 ⑧ 전원생활의 가능여부
- ⑨ 노인들을 위한 운동·레저 시설 ⑩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⑪ 주택 가격
- ⑫ 또래집단의 밀집정도 ⑬ 이전 주거지역과 유사한/근접한 지역 ⑭ 기타



[그림 IV-13] 노인들의 주거 선택 요건(분당 타워)

한편, 부차적 요건들에서는 두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N타워의 응답자들의 경우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 편리성’을 꼽았고, 분당타워의 응답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운동·레저시설’ 요건에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 본 ‘주거소비 행태 변화’에서 N타워 응답자의 66.6%가 ‘편의시설의 다양성’을 선택하고, 분당타워의 79.2%의 응답자가 ‘건강’ 요인을 선택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였다. (그림IV - 2, 3) 참고) 반면, 노인주거 이동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지는 지역애착심과 자녀들과의 접근성 등의 중요성은 그 비중이 낮거나 주택선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N타워의 응답자 중 12.7%가 ‘주택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부분이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4. 소결

1차 기본 설문 결과 N 타위와 분당타위의 응답자들 대부분이 높은 생활수준과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건강한 노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은퇴 후 보다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을 결심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메커니즘 특성과 주거공간의 구조적 변화가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두 노인복지주택의 응답자들은 ‘중·상층’ 이상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고, ‘보통’이상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둘째, 응답자들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 결정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life event는 ‘은퇴’였고, 주거선택 요인으로는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노화불안으로부터의 보호’ 등으로 축약될 수 있다.

셋째, 두 노인복지주택의 응답자들 모두에서 강남 3구로부터의 이동빈도가 높았다.

넷째, 응답자들 중 약 50% 이상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경제적 여건’에 의해 주거를 소비 해 왔으나, 노령(老齡)화됨에 따라서 ‘편의시설의 다양성’이나 ‘건강’이 주거소비에 있어 우선되어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일부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사회활동 영역 감소에 따른 주거공간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고령자들의 경우 ‘경제적 수익측면’이나 ‘주택 가격’보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노인들을 위한 운동·레저시설’ 그리고 ‘주택의 브랜드 이미지’ 등이 주택을 선택하는 데 더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자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노인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양되는 주거공간의 거주민들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서비스·여가 서비스·의료 서비스 등을 갖춘 주거공간으로의 이동이 노인들의 주거공간 내에서의 활동은 물론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고령자들의 활동영역이 주거공간으로 집중되는 데 가장 큰 영향요인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이지만, 공간적 환경 구성의 영향 또한 노인들의 생활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알아 본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표면적인 주거 이동 메커니즘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변화 등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식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한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한정된 연령집단만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들이 경험한 주거이동 메커니즘에서 배타적 연령주의에 대한 인지적 측면 탐색 해봄으로써, 주거공간의 변화와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V.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본 장에서는 앞선 4장에서 N타워와 분당타워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주거이동 과정과 생활행태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주거공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근린환경에서의 거주(dwell) 경험은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전이시키고(Fone, 2007),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증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Galea, 2007). 이처럼 불량한 근린환경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이동능력 제한을 겪는 노인들을 더 크고 잦은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주거지역 근린 특성이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오고 있는 노인인구집단 내에서의 근린환경과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의 상관성은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다. 일관성 결여는 노인 개개인이 근린환경에 대해 가지는 문제인식·소속감·정신적 고충 등의 인지과정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각 근린 환경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Gale,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의 독립성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을 위한 환경변화와 노인들의 행태적·인지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Michael, 2006).

한편,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오늘날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연령주의(Ageism)는 전통적 가치체계 붕괴로 인하여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공급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서의 주택과 상류층만이 접근 가능한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³⁴⁾ 등 이분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배타적 연령주의의 인식체계 속에서 이를 조절 해 나갈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가 재 부여 되고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평균 이상의 자본

34) 제도적 측면에서 ‘양로시설(유료)’로 구분되어 공급되고 있는 실버타운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능동로 90번지에 위치한 The Classic 5000이다.

을 유사한 수준으로 축적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이동 과정 이동 이후의 배타적 연령주의의 영향과 인지정도를 탐색 해 봄으로써,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에 미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규명 해 보고자 한다.

추상적이고 복잡·다양하게 존재하는 배타적 연령주의(ageism against the aged)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본 절에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를 다룬 각종 문헌과 연구자료 그리고 인터넷 신문³⁵⁾ 등을 통해 수집된 표본 가운데, 노인주거이동 메커니즘의 이론적 단계들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최종 표본들을 추출하고 전공자의 심의를 거쳤다. 이후, 추출 된 표본들은 연구 대상자가 정규분포에 맞게 배열한 것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우선순위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 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35) 분석 자료에 참고 된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집단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Q 진술문

본 연구에서 사용 될 자료들은 2 단계에 걸쳐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주제에 대한 Q 진술문을 수집하는 과정인 ‘Q 모집단 표집’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주의(Ageism)와 노인 주거공간인식·주거행태에 관련한 국내·외의 학술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의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일부 진술문을 추출하고, 노인복지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1人)와 거주민(4人),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1人)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실성을 더하여 귀납적 방식에 의한 비구조적 표집 방식³⁶⁾으로 Q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대상자에 따라서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두 번째는 Q 방법론의 성패를 가르는 Q 표본 선정(Q-sampling) 단계로 몇몇 유의사항³⁷⁾들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도 공적인 Q-sampling을 위하여 Q 모집단 단계에서의 진술문들의 포괄성을 검토·수정하였고, 이들의 하위범주와 중위범주의 범주화 적절성을 검토·수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범주를 대표 할 수 있는 진술문만을 추출하는 단계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 된 Q-sample은 연령주의 연구 전문가와 Q 방법론 연구자의 검증을 받았다. 또한 본 연구가 포괄적 연구(extensive)³⁸⁾에 해당함에

36) 비 구조적 방법은 특별한 연구 설계 없이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을 종합하는 것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문장이 Q 진술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많은 진술문을 작성한 후 대표적 진술문을 선택하는 방법이 좋다. 반면, 구조적 방법은 피셔식의 실험 및 분산분석 설계원리(Fisherian experimental and analysis of variance design principal)에 따라 작성된 것을 의미하고, 개인들의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구축하는 대신에 연구 대상자들을 통하여 기존의 이론을 형태화 하는 이론화 작업이 해당된다(김순은, 1999).

37) 문헌·심층면접을 통해 구축된 Q모집단들에서 최종 표본은 선정하여 진술문을 구성할 때 다음의 유의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김흥규, Q방법론, 2008, p.94).

- ① 모든 항목은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한다
- ② 모든 항목은 자아 지시 적 이어야한다
- ③ 진술문은 피험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 선정, 회화체를 유지하되 지나친 은어나 속어는 자제하는 등 그것을 분류하는 피험자를 고려해 작성한다.
- ④ 한 진술문은 대개 하나의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어야한다
- ⑤ 한 진술문이 단순히 다른 진술문에 반대되는 경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8) Q 방법론에서 Q-sample 분류를 위해 선정한 응답자를 P-sample이라고 한다. P-sample의 수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인 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45명을 P-sample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Q-sample은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연령주의에 근거한 주거공간인식 형성 영향요인

No.	출처	진술문
1	문헌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2	문헌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 이었다
3	면접	내가 전에 살던 곳에는 주민들과 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4	문헌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5	문헌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6	문헌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7	면접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8	문헌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매우 쓸쓸했다
9	면접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단조로운 생활 때문에 현재 집으로의 이사를 결정했다
10	면접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11	문헌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12	문헌	나는 나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13	문헌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14	면접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
15	문헌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간 레저 일상소비 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 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16	문헌	나는 이사하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17	문헌	나는 이사하는 과정 자식/친구들의 의견을 따랐다
18	문헌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지역/주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 한다
19	면접	나의 현재 집은 사회로부터 독립된 공간이다
20	면접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젊은이들로부터 부러움을 산 적이 있다
21	면접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22	문헌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어 안타깝다
23	문헌	나는 이사 후, 사회 활동영역이 줄어들었다
24	면접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는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25	문헌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26	면접	나는 이사 후, 노인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27	문헌	나의 현재 집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
28	문헌	나는 노인은 늙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불편 해 하는 대상이라 생각 한다
29	문헌	나는 노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능력한 존재라 생각 한다
30	면접	나는 노인전용 문화 · 레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에 따라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와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로 구분 할 수 있다(김순은, 1999). 전자의 경우 1명의 p-sample에게 상이한 상황을 제시한 후 상이한 상황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성격의 연구이고, 후자의 경우 하나의 연구주제에 대하여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 P-sample 10~50명 수준이 적당하다(김흥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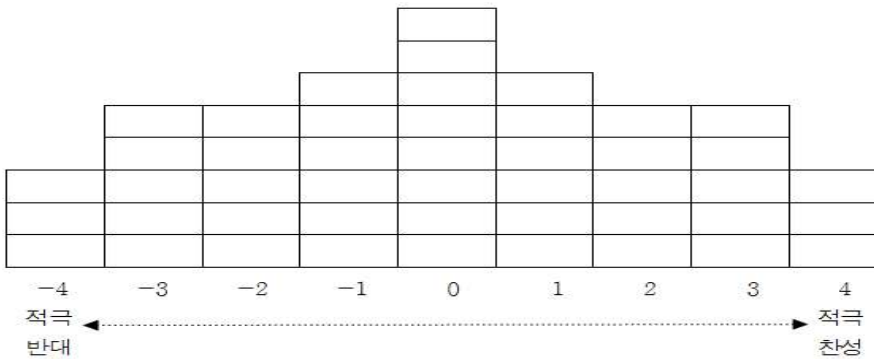
31	면접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2	문헌	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3	문헌	나는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살아야한다고 생각 한다
34	면접	나는 노인들을 하루 중 주거 단지 내 활동 비중이 높다고 생각 한다
35	문헌	나는 복잡한 도심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 한다
36	문헌	나는 활동적인 성향의 노인일수록 도심 내에서 거주하게 된다고 생각 한다
37	면접	나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38	문헌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39	면접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0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41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외로움을 달래 주는 공간이다
42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43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44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친구들을 만들어준 공간이다
45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계층을 구분 해 주는 공간이다
46	면접	나에게 현재 집은 젊은이들과 분리된 소외된 공간이다

출처: 문헌= 24문항 / 면접= 22문항

2. 연령주의 관점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앞선 단계를 통해 추출된 46개 Q 표본에 대한 45명의 P 표본, 즉, 피험자들은 Q-sorting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P 표본들의 주거공간인식 분류 결과를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는 'PQ method 2.11'을 사용해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요인 회전에는 요인 숫자에 초점을 맞춘 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즉, 표본 자료에 대한 분석은 피험자와 실험자에 의한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Q-sorting 단계는 피험자들의 진술문 분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V-1]과 같은 강제분류방법³⁹⁾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은 선정된 46개의 Q-sample 카드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적극 동의(+4)'에서부터 '적극 반대(-4)'까지의 9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Q 요인점수표(Q-factor array)에 부합하도록 분류하게 된다.



[그림 V-1] 진술문의 분류 방식

39) Q-sorting 단계에는 강제 분류방법(forced sorting)과 비 강제 분류방법(unforced sorting)이 있다. 전자의 경우 연구자가 등간척도의 각 등급별로 응답 개수를 미리 정해두고 응답자가 정해진 개수만큼 각 진술문에 해당하는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지정된 등간척도의 범위 내에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각 진술문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오택섭, 최현철, 2004).

연구자의 개입이 최소화 된 환경에서 진행된 피험자들의 Q 표본 분류 결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PQ Metho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주거공간인식들을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45명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10개였으며, 10개 요인의 설명력은 77%로 나타났다. 10개의 요인 모두를 분석에 사용할 경우 요인(유형)들의 성격 규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설명력이 있는 요인을 4개를 기준으로 주거공간인식을 구분하였다. 선택된 4개의 요인의 설명력은 59.9%로 약 60%라 할 수 있다.

PQ method 2.1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표 V-2]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었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P-sample들은 flagging(X표시)처리 되어 도출된다. 즉, 45명의 총 응답자 중 1유형이 14명, 2유형이 11명, 3유형이 5명 그리고 4유형에 13명이 속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의식 유형에 몇 명이 해당하느냐 보다는 의식의 유형 구분이 어떤 내용들로 구분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 한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대한 46개 진술문을 이용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전체적인 분석 단계는 [표 V-3]과 같이 요약 해 볼 수 있다.

[표 V-2] 요인 회전 후 요인적재량 산정

응답자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ID. 1	-0.25	0.65X	-0.7	0.5
ID. 2	-0.16	0.37	0.26	0.53X
ID. 3	-0.11	0.02	0.29	0.65X
ID. 4	-0.1	0.63X	0.09	0.16
ID. 5	0.03	0.52X	0.17	0.47
ID. 6	-0.05	0.36	0.25	0.54X
ID. 7	0.19	0.09	0.38X	-0.1
ID. 8	-0.27	0.58X	0.39	0.2
ID. 9	-0.13	0.64X	0.1	-0.17
ID. 10	0.23	0.56X	0.45	0.12
ID. 11	0.22	0.07	0.68X	0.14
ID. 12	-0.17	0.74X	-0.19	0.16
ID. 13	0.22	0.33	0.53X	0.19
ID. 14	-0.08	0.24	0.52X	0.16
ID. 15	-0.34	0.78X	0.11	0.12
ID. 16	0.3	0.73X	0.24	0.09
ID. 17	0.53X	0.45	0.39	-0.12
ID. 18	0.34	0.7X	-0.13	0
ID. 19	0.57X	0.08	0.42	0.21
ID. 20	0.39	0.66X	-0.24	0.2
ID. 21	0.57X	0.33	0.17	-0.22
ID. 22	0.44	0.16	0.1	0.71X
ID. 23	0.64X	0.13	0.03	0.38
ID. 24	0.05	0.3	-0.41	0.62X
ID. 25	0.51	0.07	0.11	0.69X
ID. 26	0.36	0.19	0.14	0.67X
ID. 27	0.19	0.17	-0.34	0.52X
ID. 28	0.6X	-0.22	0.18	0.48
ID. 29	0.39	0.1	0.03	0.48X
ID. 30	0.27	-0.05	0.3	0.6X
ID. 31	0.31	-0.02	0.27	0.62X
ID. 32	0.30	-0.03	-0.06	0.76X
ID. 33	0.11	0.18	0.5	0.47X
ID. 34	0.24	-0.03	0.7X	0.21
ID. 35	0.78X	-0.02	-0.01	0.19
ID. 36	0.78X	-0.2	-0.01	0.19
ID. 37	0.55X	-0.18	0.11	0
ID. 38	0.52X	-0.28	0.14	0.06
ID. 39	0.2	-0.26	0.51X	-0.08

ID. 40	0.24	-0.03	0.7X	0.21
ID. 41	0.53X	-0.29	0.24	0.13
ID. 42	0.62X	-0.05	0.17	0.17
ID. 43	0.7X	0.09	0.18	0.14
ID. 44	0.65X	0.01	0.16	0.14
ID. 45	0.56X	0.09	0.16	0.43
eigen value	11.954	6.306	3.596	2.965

[표 V-3] Q연구 조사 절차 및 주거공간인식 유형 도출 과정

[Q연구 조사 절차]

① Q 모집단 표집	-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노인복지주택과 연령주의에 관한 인식유형 진술문 123개 수집
② Q 표본 선정	- 노인복지주택 거주민 3명을 대상으로 문항 예비조사 실시 - 노인복지주택 관련 종사자와 연령주의 연구자에 의한 검증 - 수집된 문항을 중위범주 4개, 하위범주 46개로 분류
③ P-sampling	- 연구 기준에 의해 도심과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선정 후, 거주민 대상으로 총 45명 분석
④ Q-sorting	- 정상분포에 따른 46개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들의 의견 중요도에 따라 분류 - 조사대상자의 양극단에 위치한 진술문을 통해 의견 파악
⑤ 자료처리 및 분석	- PQ Method 프로그램에 맞는 data file 작성 - Q 유형분석을 통한 거주민 주거공간 인식유형 도출 - 각 인식유형별 특성은 해당 유형의 표준점수(z-score)가 ±1 이상인 양극단 진술문을 종합하여 분석

[주거공간인식 유형 도출 과정]

① QENTER	- 연구 대상자들의 Q소트 자료를 PQ Method 프로그램에 입력
② QPCA	- 주요인분석(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실시 :일반적으로 <i>센트로이드(QCENT)</i> 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i>판단적 회전(QROTATE)</i> 을 실행하고, 주요인분석(QPCA) 방법으로 요인분석 시, <i>비 이론적 회전(QVARIMAX)</i> 를 실행 한다 (김흥규, 2008).
③ QVARIMAX	- Varimax 방법으로 요인을 회전 :요인 수는 고유 값이 1 이상이면서, 총 분산의 50-60%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까지 선정 한다 → 변수들을 축약하고 잠재적 요인 추출을 위해, 고유값의 크기나 뚜렷이 설명력이 높은 요인들만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흥규, 2008).

3.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에 대한 유형 별 인식 해석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해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flagging 처리되어 추출된 P 표본들을 4장에서 알아본 인구학적 정보와 주거행태 변화 관련 정보들과 대응시켜 유형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선 4장에서는 5점 척도의 선택형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유형 별 특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주거공간인식 해석 과정에서 동일한 주거공간이 유형 별로 차별적으로 작용한 요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Q 분석 결과 도출된 각 유형의 특성을 P 표본들이 적극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양 극단의 진술문들을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유형 별 특성은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의 ‘적극성’ 정도는 표준점수(z-score)의 절대 값이 1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즉, 표준점수로 처리했을 때 절대 값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표준편차를 넘어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진술문들에 대한 것보다 응답자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 유형의 특성이 드러나는 양극단의 진술문들은 유형 별 해석에서 정리 해 두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주거공간인식 해석은 주거이동(residential mobility)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화가 연구 대상자들에게 외적인 주거행태 변화와 내적인 연령주의 변화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유형 별 주거공간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가지고 있는 공간성을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분석 결과 도출된 네 가지 주거공간인식 유형의 구분은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이동 과정’과 ‘주거이동 결과’에 연령주의가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다음 [표 V-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유일하게 제 1 유형은 주거이동 과정과 결과 모두 연령주의와 무관한 유형으로 도출되었고, 연구 대상자의 약 68%에 해당하는 이외의 유형 응답자들은 모두 주거이동

이전 혹은 이후에 연령주의의 영향을 받아 주거공간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4]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의 주거공간인식 유형 구분

주거이동 이전 주거이동 이후	연령주의와 상관된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별개의 영향요인
연령주의와 상관된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3 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4 유형)
연령주의와 별개의 주거공간인식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2 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1 유형)

1) 제 1유형: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제 1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그 중 분당타워 거주민이 약 80%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성별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4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표 V-5] 참고)

[표 V-5] 1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ID	연령	성별	주택입지	거주기간 (연)	이주계획	인자 적재치
ID.17	79	女	도심	4	×	0.53
ID.19	80	女	도심	3	×	0.57
ID.21	83	女	도심	3	×	0.57
ID.23	85	女	근교	3	×	0.64
ID.28	89	女	근교	8	×	0.6
ID.35	83	女	근교	7	×	0.78
ID.36	77	女	근교	4	×	0.78
ID.37	85	女	근교	7	×	0.55
ID.38	93	男	근교	3	×	0.52
ID.41	74	男	근교	4	×	0.53
ID.42	84	男	근교	9	×	0.6
ID.43	79	女	근교	2	×	0.7
ID.44	86	女	근교	4	×	0.65
ID.45	72	男	근교	2	×	0.56

자료: 설문조사

먼저 4장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1 유형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을 ‘은퇴 이후’의 시기에 ‘노화불안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해 주거이동을 고려하고 주거공간 변화를 확정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과거 주거소비 기준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었지만,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거소비 결정은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이 우선시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주거공간 내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시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인 활동 시간의 비중이 높았던 과거 주거생활 행태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만들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공간 변화는 1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의 변화한 행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생활영역이 주거공간으로 집중되

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일정부분 주거공간 내의 여가시간에 대한 적응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주거공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시간 보내기'나 '대화'에 도움을 요구(원윙희, 2009)하고 있는데, 1 유형의 집단은 전형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1명의 여성 중 8명이 과거직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무직'으로 응답하였음을 미루어보아 남편의 근로자 역할 상실과 함께 주거이동을 결정하였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하다.

다음으로 1 유형 집단의 노인들이 경험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견해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중층'에 해당하는 주관적 생활수준과 '보통'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1유형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한 연령주의 관점의 진술문을 토대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6] 참고)

제 1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현재의 주거공간을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한 집단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화(老化)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들은 기존의 인간관계와 익숙한 환경의 변화를 통한 단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Valentine, 2009), 많은 노인주거 관련 연구들은 노인들의 지역·주거 애착심을 강조 해 오고 있다. 1 유형의 사람들 또한 [표 V-6]의 12·18번 진술문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노화와 환경변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감수하고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와 노화로 인한 두려움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이동을 감행함으로써 스스로 조절 해 나가려는 집단임을 [표 V-6]의 12·25·7·42번 진술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은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능력 퇴화현상을 자가 조절(self-control)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한편, 주거공간을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개성표현의 수단으로써 인식하는 진술문들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한정된 연령이 밀집한 공간적 특성

이 노년기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장소로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이룬 집단이기 때문에 조력이동(Assistance Move)의 주거이동 행태를 보인 집단이라 할 수 있고,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성격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조절로 규명 할 수 있다. ([표 V-6]의 42번 진술문] 참고)

“우리가 아프면 누가 오냐고. 가까이 있지도 않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의사야? 아니니까. 걱정이 되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는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 그냥 아프지 않고 저 세상 가는 게 원이라고…… (축약) 지난 달에도 3명이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 알지는 못해. 땅이들 살거든 여기, 알지는 못해도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지는 않아도 두려움은 더 큰 게 내 앞날도 저렇겠구나 싶지.”

-분당 타워 거주민, 김 OO, 男, 84 세 -

“아픈거 무서워서 여기서 살지. 심심한거는 때 한가지거든. 다 늙으면 재미가 없지. 여기 간다고 하니까 다 부러워하는데, 똑같아. 우리가 뭐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있고, 밥 주고, 몸 챙겨주고 그러니까 편한거지 부러워 할 것도 없어. 뭐 전에도 관리비내고 그런건 다 똑같다고. 어차피 한 달 돈 나가는 건 같다고. 아가씨는 여기 살고 싶어? 재미없지 뭐~.”

-분당 타워 거주민, 한 OO, 女, 79세-

[표 V-6] 1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12. 나는 나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로 현재의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4	1.7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4	1.6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4	1.58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 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3	1.36
18.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지역/주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사가 쉽 지 않다고 생각 한다	3	1.24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 인으로 본다	3	1.17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14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27. 나의 현재 집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다	-4	-1.85
43. 나에게 현재 집은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4	-1.79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75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 한다.	-3	-1.52
41. 나에게 현재 집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다	-3	-1.43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었다	-3	-1.21
45. 나에게 현재 집은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계층을 구분 해 주는 공간이다	-3	-1.13

2) 제 2유형: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제 2 유형으로 추출 된 인원은 총 11명을 포함하고, 분당타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던 1 유형과 정반대로 모두 N타워의 거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의 분포는 남성이 3명 더 많지만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고, 모든 응답자가 미래의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V-7] 참고)

[표 V-7] 2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ID	연령	성별	주택입지	거주기간 (연)	이주계획	인자 적재치
ID.1	85	男	도심	2	×	0.65
ID.4	84	男	도심	3	×	0.63
ID.5	81	男	도심	2	×	0.52
ID.8	84	女	도심	1	×	0.58
ID.9	78	男	도심	4	×	0.64
ID.10	85	女	도심	4	×	0.56
ID.12	78	男	도심	1	×	0.74
ID.15	72	女	도심	2	×	0.78
ID.16	81	女	도심	3	×	0.73
ID.18	86	男	도심	4	×	0.7
ID.20	92	男	도심	1	×	0.66

자료: 설문조사

‘상층’의 주관적 생활수준과 좋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 2유형의 응답자들은 자녀의 분가 이후 ‘유사 연령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주거이동을 결심한 집단이다. 이러한 주거행태 특성은 [표 V-8]의 10번 진술문에 의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거생활행태 변화 중 유일하게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여 외부와 소통을 유지 해 오고 있으며, 주거공간 변화 이후에도 평균 주 4-5회 외출을 해오고 있는 집단으로 드러났다. 이는 N 타워의 높은 교통 접근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유형의 주거공간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8] 참고)

제 2 유형의 사람들은 주거공간을 우리나라 사회의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에 해당하는 11명의 대상자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 주거소비의 기준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거공간 내에서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노년기에는 주거공간이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와 일상생활의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이 유사한 수준의 가치관과 생활수준 영위가 가능한 집단인지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이들은 노인들이 생활 전반에서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얻고, 노화 과정과 무관하게 사회·경제·문화적 계층을 유지 해 나갈 수 있는 대가로 주거공간에서의 경상지출 상승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한편, 노인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 태도와 관련된 진술문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분리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V-8]의 2·5·16번 진술문 참고)

이러한 태도는 2 유형의 사람들 또한 현대사회 우리나라의 연령주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자신들은 배타적 연령주의(against for the aged)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써 노인인구집단 내에서 자발적 차별을 유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이들은 혼합연령(mix-age) 활동에 대하여서도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배타적 연령주의로 인한 불편함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표 V-8]의 10·31번 진술문 참고)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2 유형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익이동(Amenity Move)’ 을 경험한 집단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거공간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자신과 연령·자산·사고관 등이 다른 외부인들과는 배타성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복지주택 주거공간은 일정부분 ‘폐쇄적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주거공간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제 2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의 변화 과정은 철저하게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효과를 기대하게 하였고, 주거공간은 노인인구 집단 내의 차별을 유발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워싱턴에서 여기로 이사 온 이유 단 한 가지. 사업 딱 접고, 우리 사모님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밥, 부엌 일 딱 하기 싫어하거든?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집에 있고, 집에 있으면 뭐해? 밥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왔죠. 우리 사모님은 여기 와서 밥 안하고, 친구들 만들고 다 비슷하거든? 미국 있을 때는 늘 외롭다고... 나 홀롭하지? 나는 여기 와서 버스 한 번이면 종로에 중국어 학원 다닌다고, 얼마나 좋아? 천국이지 뭐.....”

-N 타워 거주민, 男, 78세 -

“여기는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나도 교육부에서 장관까지는 아닌데, 높은 자리에 몇 년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금을 꽤 받아. 아니면 이 집에서 유지가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여기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축약) 아무래도 다 비슷 비슷하니까, 서로 챙겨주려고 노력하지. 여기 있다고 전혀 안 외롭고, 안 쓸쓸하고 그렇잖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럼 뭐해? 서로서로 다독여주면서 재밌게 사는 거지. 이런데서 여행도 가고, 노래자랑 하면 거기도 나가고, 내가 저번 대회에는 우승했다고.....”

-N 타워 거주민, 男, 81세-

[표 V-8] 2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15. 나는 나이가 들수록 보건·레저·일상소비·가사노동 서비스 등 복합 기능이 제공되는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2.116
32. 나는 노인들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4	1.877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1.526
14. 나는 나이가 들수록, 경상지출이 높아도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	3	1.381
42. 나에게 현재 집은 건강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3	1.254
1.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이 컸었다	3	1.20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134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663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612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이 무시당할까봐 걱정 이었다	-4	-1.506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3	-1.4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58
40. 나에게 현재 집은 자아실현의 공간이다	-3	-1.338
16. 나는 이사하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내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	-3	-1.224

3) 제 3유형: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제 3 유형으로 추출된 인원은 총 7명을 포함하고, N 타워와 분당타워 거주민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기본정보에서 앞선 유형들과 차별화된 점은 미래의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존재라 할 수 있다. 미래 이주계획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P 표본들은 모두 N타워 거주민들이었고, ‘만족스럽지 못한 커뮤니티’(1인)와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2인) 등을 주거이동 희망 요인([표Ⅳ-4] 참고)으로 꼽았다. ([표 V-9] 참고)

[표 V-9] 3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ID	연령	성별	주택입지	거주기간 (연)	이주계획	인자 적재치
ID.7	77	女	도심	3	○	0.38
ID.11	78	女	도심	2	○	0.68
ID.13	91	男	도심	4	○	0.53
ID.14	75	男	도심	4	×	0.52
ID.34	89	女	근교	7	×	0.7
ID.39	76	女	근교	1	×	0.51
ID.40	87	女	근교	6	×	0.7

자료: 설문조사

먼저, 제 3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중상층’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 집단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했을 때’를 주거이동 시기로 꼽고, ‘유사 연령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주거이동요인으로 응답한 빈도가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적 변화와 그 영향력이 기대되는 집단이다.

제 3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한 진술문을 토대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0] 참고)

이들은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3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자발적 주거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집단이다. 이들의 부정적 주거공간인식 형성의 이유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

이동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자신의 신체적 기능저하 보다는 노화로 인해 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하고 통념적으로 내려오는 노인들에 대한 편견에 의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주거이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V-10]의 5·6·13번 Q진술문 참고)

나와는 다른 ‘그들(other)’에 대한 정체성 형성에 지리적 공간(어디에 사는 사람인가)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윤홍기, 2009). 하지만 이들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공간 변화를 경험 한 후에도 여전히 3 유형의 사람들은 노화로 인한 불안감은 물론, 연령 유사 집단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 이동 후 직접적으로 다른 거주민들과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전 거주지에서 경험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요인이다. 즉,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기존에 이전 주거공간에서 형성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 합의 혹은 주민간의 교류를 통한 합의·사건(event)등을 겪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김부성(1998)은 약 60세 이상의 노인들 또한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소득·건강·가치관·공간적 행태·경험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집단임을 인정하고, 노인인구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주거공간에서 경험한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해 형성된 주거공간에 대한 공간감이 현재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으로써 인식하게끔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3 유형의 노인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3 유형 사람들의 주거공간인식에는 지리적 공간 변화의 영향력 보다, 경험에 의해 설정된 기존의 선입견(stereotype image)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 V-10]의 Q 진술문 5·6·26·24번 등을 통해 드러난다. 한편, 그 효과에 대하여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현재 주거공간에서 청·장년층과의 소통이나 주거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표 V-10]의 22·31번 진술문 참고)

[표 V-10] 3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5.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주민활동(지역 활동)에서 배제당한 적이 있다	4	2.32
6.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나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4	2.19
8.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매우 쓸쓸했다	4	1.61
26. 나는 이사 후, 노인집단 내에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다	3	1.47
44. 나에게 현재 집은 친구들을 만들어준 공간이다	3	1.31
41. 나에게 현재 집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다	3	1.2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06
13. 나는 이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가졌었다	3	1.03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11.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전원(시골)생활이 좋은 것이라 생각 한다	-4	-1.93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었다	-4	-1.56
39. 나는 현재 주거공간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4	-1.52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48
25. 나는 이사 후, 노화로 인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3	-1.24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는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06
33. 나는 노인들의 경우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3	-1.02

4) 제 4유형: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

제 4 유형으로 추출된 인원은 총 13명을 포함하고, 분당타워 거주민들의 약 7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의 응답자들 또한 미래의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안정성의 요인으로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 이용’(1人)과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2人) 등을 꼽았고, 이들이 모두 분당타워의 거주민이라는 것은 모두 N 타워 거주민이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던 3 유형과 상반된 결과이다. ([표 V-11] 참고)

[표 V-11] 4 유형: 응답자들의 기본정보

ID	연령	성별	주택입지	거주기간 (연)	이주계획	인자 적재치
ID.2	84	女	도심	2	×	0.53
ID.3	82	男	도심	3	×	0.65
ID.6	83	男	도심	2	×	0.54
ID.22	77	女	근교	7	×	0.71
ID.24	74	男	근교	5	×	0.62
ID.25	86	女	근교	7	×	0.69
ID.26	88	女	근교	9	×	0.67
ID.27	92	男	근교	9	○	0.52
ID.29	76	男	근교	9	×	0.48
ID.30	89	女	근교	7	○	0.6
ID.31	80	男	근교	9	×	0.62
ID.32	83	女	근교	8	○	0.76
ID.33	79	男	근교	1	×	0.47

자료: 설문조사

제 4 유형으로 추출된 사람들의 주거행태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의 분가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하여’를 주거이동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5 장에서의 심층적 연구를 통해 자녀 혹은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주거이동이 이루어진 집단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4장과 5장에서의 결과 차이는 부양 및 효도와 관련한 보수적 사고관에 의해 선택형의 기본 설문에서는 회피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자발적 주거이동을 경험

한 4 유형의 사람들은 앞선 유형들과 크게 차별화 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유형은 비자발적 주거이동 행위를 토대로 해석 해 나가 보고자 한다.

계속해서 제 4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한 진술문을 토대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2] 참고)

이들은 ‘도심’이라는 지리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력을 지니는 젊은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젊음과 노화에 대한 신체·심리적 격차를 인정하는 동시에([표 V-12]의 35번 진술문 참고), 노인들의 경우 주거소비 기준이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더욱이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공간 내에서는 물론 노인전용으로 연령이 제한된 시설보다는 혼합연령(mix-age)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표 V-12]의 22· 31·30·37·10번 진술문 참고)

하지만 현재 한정된 연령집단만이 거주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12]의 46번 진술문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명 중 3명의 소수만이 미래에 주거이동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4 유형 응답자들은 매우 낮은 주관적 삶의 질을 영위해 갈 나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심층인터뷰는 노인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무시된 주거이동에 따라 형성된 부정적인 주거공간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는 전에 살던 데가 캘리포니아야. 할머니 먼저 가고, 일 좀 더 하다가 왔지. 아주 딱바로 여기로 온건 아니고 잠깐 아들집(신당동)에 있었는데, 불편하더라고. 사실 나야 좋지. 계속 타지에 있고, 그랬으니까. 근데 서로한테 안 좋다고. 근데 뭐 이런 데가 있다길래...(축약) 나는 여기서 주는 밥 안 먹어. 줄 서서 먹는 게 싫거든. 내가 팔, 다리 멀쩡한데 병신도 아니고, 몰라~ 나 중에 나도 어디 아파서 그러면 쪽-- 줄서서 먹는데 가서 서 있을지? 근데 그냥 싫더라고, 또 나는 소세지,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해. 해장도 이렇게 좋은데 뭘... 커피도 아메리카노가 좋고.. 여기 이마트가 가깝거든, 그러니까 가서

장 봐 와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늙었다고 밥 시간되면 다 배고프고 그런 건 아니잖아? 뭐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이제 일도 안 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시간마다 뭘 해야 해? 안 그래? (축약) 심심하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다고 여기가. 나같이 할아버지 혼자한테, 뭐 할머니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거기 할아버지가 싫어하고, 할머니들이 말이 너무 많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잘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야. 아니면 여기에 할아버지들 바둑 두러 내려오면, 가끔 두고 그러지. 나는 여기서 가는 여행 같은 것도 잘 안가. 우리가 다 늙었다고, 효도 관광 같은 거 알지? 그런 여행만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거 할머니들이 아주 환장하지... 여기 생활이 이래~.”

-N 타워 거주민, 男, 82세-

따라서 4 유형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으로 주거공간 변화가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연령주의로 인한 우려와 번민의 심경이 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2]의 24·2번 진술문 참고)

노인복지주택과 같이 주거공간에 보호의 기능이 침투한 경우 보호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체화된 주관성과 활동은 방해받게 되고, 일정부문 규칙적 활동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Ruddick, 1995; Tamm, 1999). 이처럼 이들 집단에게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하는 하루 식사 제공·홈 케어 서비스·세탁 서비스·운영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복합적 서비스는 새로운 일상 규범으로 작용함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그저 신체적·심리적 기능저하를 겪고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표에 대한 준수를 권장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립적인 지배권을 침해당한 노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제 4 유형의 노인들에 의해 연령주의를 생성해내는 공간성을 부여받았다. 주거공간에 대한 노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주거이동 행위가 자발적이지 못했을 경우 더 높은 발생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표 V-12] 4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Q 진술문

적극 찬성 Q진술문	Q 값	Z 값
38. 나는 노인들의 주거 선택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진다고 생각 한다	4	2.19
46. 나에게 현재 집은 젊은이들과 분리된 소외된 공간이다	4	1.84
35. 나는 복잡한 도심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 한다	4	1.42
22. 나는 이사 후,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어 안타깝다	3	1.35
7. 나는 전에 살던 동네의 주변 편의 시설이 나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다	3	1.24
17. 나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자식/친구들의 의견을 따랐다	3	1.19
23. 나는 이사 후, 사회 활동영역이 줄어들었다	3	1.03
31. 나는 현재 주거단지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02
적극 반대 Q 진술문	Q 값	Z 값
21. 나는 이 집에 살기 때문에 외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은 노인으로 본다	-4	-1.98
4. 내가 전에 살던 곳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했다	-4	-1.83
30. 나는 노인전용 문화레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72
37. 나는 노인들의 경우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3	-1.33
10. 나는 나이 든 사람일수록 생활수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3	-1.21
24. 나는 이사 후, 늙었다고 무시 하는듯한 대우를 덜 받는다	-3	-1.17
2. 나는 전에 살던 곳에서 늙었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 이었다	-3	-1.08

4. 소결

본 절의 분석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한정된 연령만이 거주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 과정을 배타적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주거공간인식에 미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물리적 주거공간 변화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 도출 할 수 있었고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성을 유추 할 수 있었다. ([표 V-13] 참고) 특히, 노인복지주택의 거주민들은 일반주택에서의 주거공간인식 형성의 영향요인들과 차별화 된 심리적·인지적 변화를 주거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노블레스타워와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의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인 연구 대상자들은 현재 주거공간을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일한 주거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 생활수준이나 건강상태 및 주거소비·생활행태 변화 등의 표면적 정보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노인들의 주거이동 촉발 과정에서의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도출 된 주거공간인식 유형들을 통해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결코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주택을 ‘노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연구 대상자 중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노화와 환경변화의 심리적 상관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은퇴 이후 여생의 많은 부분을 ‘건강한 삶 유지’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상생활 행태의 많은 변화를 감수하고, 노화로 인해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기능 하락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주거공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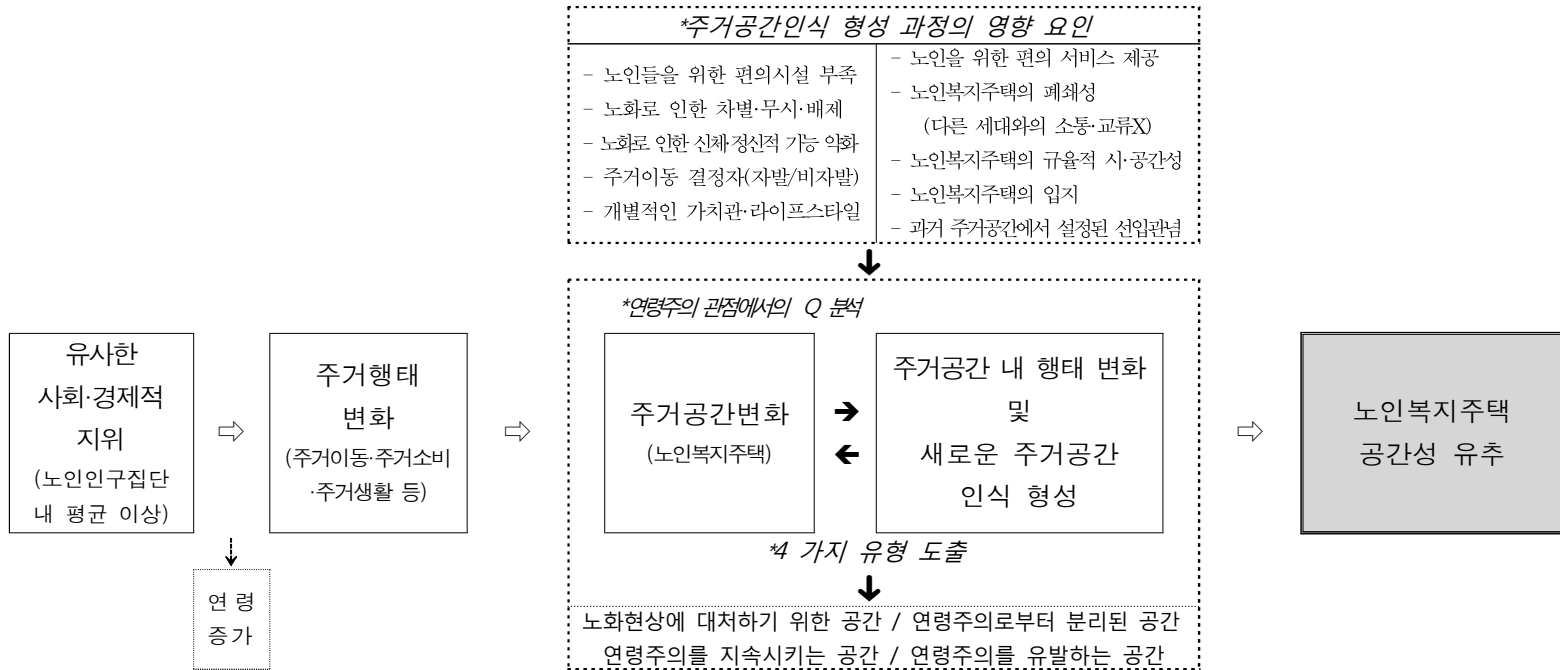
-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연령주의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맞춰진 집단은 표면적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편의이동(Amenity Moves)의 주거

행태를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주거공간 변화를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고자 했다. 즉, 노인인구집단에 대한 배타적 연령주의를 인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이동과 이동 이후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의사를 포함으로써 자신들을 배타적 연령주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연령주의를 지속시키는 공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전반적인 주거공간 변화 과정에서 배타적 연령주의 즉,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다. 이들은 이전 거주지에서 배타적 연령주의에 의한 배제와 편견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으로의 공간변화보다 기존에 경험으로 인지된 선입견(stereotype image)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주거공간인식을 지니고 있다.

- 비자발적 주거이동으로 인해 주거공간 변화를 겪은 4 유형의 노인들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시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공간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주거이동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비롯한 자신의 노화과정에 대하여 크게 인식하지 않고 살았으나, 노인복지주택으로의 공간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노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일상규범과 주변 태도에 의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4 유형의 노인들은 현재 주거공간을 ‘연령주의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표 V-13] 연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인식 형성 과정 분석 결과



VI. 결론 및 요약

Rich(1986)는 신체(body)를 ‘가장 가까운 지리적 공간’으로 묘사하였는데(Valentine, 2009), 연구 결과 필연적으로 모든 노인들은 ‘신체화(身體)화 된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노화에 따른 가장 1차적인 지리적 공간의 손상을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공간인 주거로부터 보상받고자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공간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신체화 된 주거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노인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거이동이 노인문제의 돌파구 역할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 정도를 탐색함으로써 고소득·고학력 노인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공간인식을 유형 별로 도출 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공간을 가진 집단이더라도 개인별로 주거공간 변화과정에서의 경험이나 가치관 및 주거이동 결정자 등에 따라서 주거공간 인식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더욱이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을 단순히 ‘active adult’ 혹은 ‘active senior community’로 보는 보편적인 시각(Golant, 1982; McHugh & Larson-Keagy, 2005 et al.)을 넘어서 거주민들의 전반적인 공간 변화 과정에 연령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들의 심리·인지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거공간과의 다양한 상관성을 유형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신체적 기능 보상 측면을 넘어서 심리적·인지적 측면의 요인들에 따른 주거공간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 된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해석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주거공간 변화를 통해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에 대한 보조와 개인적 라이프 스타일을 고

40)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신체화 된 주거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가진다. 첫 번째는 ‘신체’의 의미 그대로 육체적 기능을 보조해 주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신체’를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정하는 개인적인 ‘공간’(Valentine, 박경환(역), 2009)으로 간주하여 다른 이들과 구분하고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뜻한다.

수하고자 하는 제 1·2 유형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이다. 즉, 이들은 주거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노화에 따라서 진행 될 행태적 변화들에 대하여 노인들 스스로 조절하고 예방 및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주거공간인식 체계의 확립과정에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지와 시설,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위치를 가진 집단에게만 열려있는 접근성과 같은 노인복지주택의 공간적 특성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거공간과 노인들의 심리적 상관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제 3·4 유형 노인들의 주거공간인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거공간 변화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 즉,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 연령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동일한 주거공간이지만 제 3 유형의 노인들에게는 배타적 연령주의로 인한 소외감은 연속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제 4 유형의 노인들에게는 노인들로만 한정된 거주민 구성과 규범적인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소외감과 자립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인구집단 내 평균 이상의 소득과 학력을 가진 노인들을 대변하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이동 메커니즘에 미친 연령주의의 영향을 입증 할 수 있었고, 개개인의 주거이동 촉발요인과 가치관에 따라서 주거공간에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노인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산업 등에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인용 주택들의 시설이나 설비의 개발·수요예측·제도개선 등을 다룬 연구들은 포화상태인 반면, 노인복지주택의 입지문제나 거주민들의 이동과정과 이용행태 및 공간성 등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참여한 노인복지주택 거주민이 소수였기 때문에 모든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공간인식이 분석 결과의 유형들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급되는 노인복지주택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주거공간을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환

경 구성 시 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인식에 대한 심층적 탐색 부재는 정작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거나 차별을 유발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집단의 공간인식에 대한 이해가 시설 공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 강윤희, 2005, “현대 러시아인의 페미니즘 인식연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 17권(2)
- 강인순, 2004, “우리나라 지방 분권과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연구, 제26호, p. 7-30
- 김동선, 2011, 연령주의적 관점에서의 고령자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부성, 1998, “노인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고찰”, 지리학회, 제 31호, p.17-34
- 김순은, 1999, “Q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9호(2)
- 김용득, 2008,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Vol.60(2)
- 김용범, 2001, 한국 도시주거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주거사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욱,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Vol.23(2)
- 김윤정·강인·이창식, 2004, “청년 중년 노년 세대 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Vol.22(1)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제82집, p. 361-391
- _____,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제 35권(1)
- 김충기, 2008, 실버타운 선택의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8(4)
- 노공균·조소영·신동숙·이태훈, 1991,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nd Emo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한국인구학, Vol. 14(2), p. 45-70
- 박경란·이영숙, 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Vol.21(2)
- 박신영·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의 공급제도 개선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소
- 박재홍, 1991, “한국사회의 노인문제: 교환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5집
- 박천규,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연구”, 국토연구 제 60권, p. 171-187
- 박희, 1997, 유교적 가족주의와 현대한국사회,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
- 서강훈, 정영일, 2008,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개발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17집
- 서은미, 2004, “중년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의사

-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6호, p.121-131
- 송현애, 2008,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과 「노년기」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6권 3호
- 신영숙, 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2호, p.105-120
- 신화경, 2008,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6권(5)
- 오경석, 2001,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이야기”, 한국노년학, Vol.22(2)
- 오찬옥, 2008, “그룹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19(3)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Vol.21
- 유병선, 2005, “영국·미국·일본의 노인공동생활주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3권(5)
- 이광규, 1983,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一志社)
- 이상은·최재필, 200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조선시대 안동지역 상류주택 공간 배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8
- 이승권, 2010, “수도권 노인·비노인 인구의 공간분포 및 이동특성”,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제 8권(2)
- 이윤경, 2007, “비 노인층이 갖는 노인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Vol. 30(2)
- 이정섭, 2010,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에 대한 출생코호트 접근과 해석: 진주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준민·신화경, 2004, “중년층이 선호하는 노인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산업과학 연구, Vol. 14
- 이혜훈, 2001, “인구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이희연, 2010,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인구이동 흐름분석”, 국토연구원, 제 67권
- 임철우·윤정숙, 1993, 노인을 위한 공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의 도입, 경춘사
- 전경숙, 2003, “노년기 생활기능 감소와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14(5)
- 전영진, 2008, “실버타운 예비 수요자의 입주의향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부동산·도시 연구 제 1권 1호, p.75-91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1)
- 정규호, 200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의 합의 형성에 관한 연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 진미윤·이현, 1995, “노인가구의 주거소비행태에 따른 노인주택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3(1)
- 진상현, 2000, 환경재의 가치유형 분석: 영월 다목적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6, “Q방법론: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 국토연구원 302호, p. 123-131
- 진상현·김두환·허은녕·김현준, 2005, “홍수터 복원에 대한 장애요인 분석: 임진강유역 농경지 저류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7권(4호)
- 최승호, 2009, 노년기 주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충익·정주리, 2009, “Q방법론을 이용한 주민 환경갈등구조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1권(3)
- 하춘광, 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및 실버타운 선호도가 실버타운 입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Vol.24, p. 201-224
- 한문희, 2007, “도심형 실버타운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요, p. 63-74
- _____, 2011, 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의 발전과 개발 방안, 고려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0(3)
- 홍형욱·서은미, 2005,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개발자 유형에 따른 개발과 관리 특성 선호 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6)
- 홍형욱, 200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견해의 지역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 42권 7호

국외문헌

Bytheway, B., 2000, Youthfulness and agelessness: a comment, *Ageing and Society*, 20, 781-789.

_____, 2005, Ageism and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61-374

Bytheway, B., Johnson, J., 1990, On Defining Ageism, SAGE.

Brown L. A. and Moore E. G., 1970,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52(1), 1-13

Burgun, J. A., 1983, Integrated Hous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4(1), 64-68

- Butler, R., 1987, Ageism,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22–23
- Chudacoff, H., P., 1989, *How old are you? PrinAge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mfort, A., 1977, *A Good Age*, London: Mitchell Beazley
- Costa-Font, J., 2008, Housing assets and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ealth and disability in old age, *Health&Place*, 14, 478–491
- Danielson, S., Webler, T., and Tuler, S. P., 2009, Using Q Method for the Formative Evalu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Society & Natural Resources: An International Journal*, 23(1), 92–96
- Dinkle, R.M., 1944, Attitudes of children toward supporting aged par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 370–379
- Dovey, K., 1985, Home and Homelessnes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8
- Eden, S., Donaldson, A. and Walker, G., 2005, Structuring subjectivities? Using Q methodology in human geography, *Area*, 37(4), 413–422
- Eyles, J. and Williams, A., 2008, *Sense of Place, Health and Quality of Life*, Ashgate, Hampshire.
- Fone, D., Dunstan, F., Lloyd, K., Williams, G., Watkins, J. and Palmer, S., 2007, Does social cohesion modify the association between area income deprivation and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6, 338–345
- Fraboni, Maryann, Saltstone, R., and Hughes, S., 1993,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f Aging*, 9(1), 56–66

Gale, C. R., Dennison, E. M., Cooper, C., and Sayer, A. A., 2011, Neighbourhood environment and positive mental health in older people: The Hertfordshire Cohort Study, *Health&Place* 17, 867–874

Galea, S., Ahern, J., Nandi, A., Tracy, M., Beard, J. and Vlahov, D., 2007, Urban neighborhood poverty and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Annals of Epidemiology*, 17, 171–179

Gilbert, M. R., 1998, Race, Space and Power: The survival strategies of working poor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4), 595–621

Golant, S. M., 1982, Individual differences underlying the dwell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Issues*, 38, 121–133

Hagestad, G. O. and Uhlenberg, P., 2005, The Social Separation of Old and Young: A Root of Ageism,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343–360

Heywood, F., Oldman, C. and Means, R., 2002, *Housing and Home in Later Life*, Buckingham·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Higgins, J., 1989, Defining Community Care: Realities and Myth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23(2), 3–16

Holden, K., C., 1998, Poverty and Living Arrangements Among Older Women: Are Changes in Economic well-being underestimated?, *Journal of Gerontology*, 43(1), 22–27

Hopkins, D. and Pain, R., 2007, Geographies of age: thinking relationally, *Area*, 39(3), 287–294

Katz, S. and Marshall, B., 2003, New sex for old: Lifestyle, consumerism, and the ethics of aging well, *Journal of Aging Studies*, 17(1), 3–16

Konots, P., 1998, Resisting institutionalization: constructing old age a negotiating home, *Journal of Aging Studies*, 12, 167–184

_____, 2004, Local biology: reclaiming body matter, *Philosophy in the Contemporary World*, 11(Special Issue 1), 87–93

Land, K., 1969, Duration of residence and prospective migration: further evidence, *Demography*, 6, 133–140

Lasher, K. P. and Faulkender, D.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Levin, J. and Levin, W., 1982, *The func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New York: Harper & Row.

Logino, C. F., 1979, Going home: aged return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1965–1970, *Gerontology*, 34, 736–745

Matcha, D. A., 1997, *The Sociology of Aging: A Social Problems Perspective*, Allyn and Bacon, Boston

McHugh, K. E. and Larson-Keagy, E. M., 2005, These white walls: The dialectic of retirement communities, *Journal of Aging Studies*, 19, 241–256

Mckenzie, S. C., 1980, *Aging and Old Age*, Glenview, Illinois

Michael, Y. L., Green, M. K., Farquhar, S. A., 2006, Neighborhood design and active aging, *Health&Place*, 12(4), 737–740

Nair, K., 2005, *The physically aging body and the use of space*, Routledge, 110–117

O'Brien, P., Caron, S., Mortenson, P. and Dyck, I., 2002, Environmental analysis: insights from sociologic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s,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9(4), 229–238

Palmore, E. B.,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_____, 2001, "The Ageism survey :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Park, N.,S., 2009, The relationship of social engagement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8, 461–481

Prezza, M., Amici, M., Roberti, T. and Tedeschi, G.,2001,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Prieto-Flores, M. E., Fernandez-Mayoralas, G. F., João Forjaz, M., Fojo-Perea, F. and Martinez-Martin, P., 2011, Residential satisfaction, sense of belonging and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and in care facilities, *Health&Place*, 17, 1183–1190

Robbins, P. and Krueger, R., 2010, Beyon Bias? The Promise and Limits of Q Method in Human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Routledge*, 52(4), 636–648

RoJo Pérez, F., Fernández-Mayoralas, G., Rodríguez-Rodríguez, V. and Rojo Abuín, J.M., 2007, The environments of aging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living in family housing, *Inter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Springer, P.123–150

Rossi, P. H., 1955, *Why Families Move: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Urban Residential Mobility*. New York: Free Press

Ruddick, W., 1995, Transforming homes into hospitals,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66–179

Schwartz, S., Danziget, S. and Smolensky, E. 1984, The Choice of Living Arrangement by Eldery, *Retirement and Economic Behavior*

Short, J. R., 1978, Residential mobility, *Human Geography*, SAGE

Simmons, J. M., 1968, Changing Residence in the City: A Review of Intra-Urban Mobility, *The Geographical Review*, Vol.58

Smets, A. J. H., 2011, Housing the elderly: segregated in senior cities or integrated in urban society?, Springer, 27, 225-239

Tamm, M., 1999, What does a home mean and when does it cease to be hom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1(2), 49-55

Townshend, I. J., 2002, Age-segregated and gated retirement communities in the third age: the differential contribution of place-community to self-actualiz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9, 371-396

Wiles, J., 2005, Conceptualizing place in the care of older people: the contributions of geographical gerontolog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 100-108

Wiseman, R. F., 1980, Why Older People Move: Theoretical Issues, SAGE

단행본과 보고서

이은미, 2012,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2002,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 연구소

김진애, 1994, 우리주거문화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서울포럼

김흥규,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재간, 2002, 노인전용주거시설의 개발전략,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원윙희, 2009, 현대 실버타운 사업계획·개발: 이론 및 사례연구, 大旺社

임철우·윤종숙, 1993, 노인을 위한 공간, 경춘사

Altman, Irwin & Chemers, Martin, 1980, Culture and Environmen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Valentine, G.,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논형

[부록1] Ageism Survey 척도

문항	구성
1	Told a Joke that pokes fun (노인을 우롱하는 농담을 들음)
2	Sent a birthday card that pokes fun (노인을 조롱하는 생일카드, 서신, 글을 받아 봄)
3	Ignored or not taken seriously (나이에 인하여 무시당하거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4	Called an insulting name (나이에 인하여 모욕적인 욕설이나 언사를 들었음)
5	Patronized or "talked down to" (나이에 인하여 선심을 받는 대상이 되거나 낮추어서 대우 받은 적이 있음)
6	Refused rental housing (나이에 인하여 집을 얻는데 거절당함)
7	Difficulty getting a loan (나이에 인하여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당함)
8	Denied a position of leadership (나이에 인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박탈당함)
9	Rejected as unattractive (나이에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끌지 못함)
10	Treated with less dignity and respect (나이에 인하여 존경의 대상에서 소홀히 취급됨)
11	Waiter or waitress ignored (나이에 인하여 식당의 종업원에게 무시당함)
12	Doctor or nurse assumed ailments caused by age (의사나 간호사가 나의 병이 나이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함)
13	Denied medical treatment (나이에 인하여 병원치료를 거절당함)
14	Denied employment (나이에 인하여 취직을 거절당함)
15	Denied promotion (나이에 인하여 승진을 거절당함)
16	Assumed I could not hear well (타인이 내가 나이 때문에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함)
17	Assumed I could not understand (타인이 내가 나이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함)
18	Told me, "You're too old for that" (타인이 "당신은 그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말함)
19	House vandalized (나이에 인하여 내 집이 도둑맞음)
20	Victimized by a criminal (나이에 인하여 범죄의 희생이 됨)

출처:Palmore et. al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2001, *The Gerontologist* vol. 41, No.5, p.573

[부록2] AAS 척도

문항	구성
1	I enjoy being around old people. (나는 노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2	I fear that when I am old all my friends will be gone. (나는 노년에 친구들이 먼저 가버릴까 봐 두렵다)
3	I like to go visit my older relatives. (나는 나이 든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4	I have never lied about my age in order to appear younger. (나는 더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여 본 적이 없다)
5	I gear it will be very hard for me to find contentment in old age. (나는 노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 봐 두렵다)
6	The older I become, the more I worry about my health.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걱정된다)
7	I will have plenty to occupy my time when I am old. (나는 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다)
8	I get nervous when I think about someone else making decisions for me when I am old.(나는 노년에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9	It doesn't bother me at all to imagine myself as being old. (늙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괴롭지 않다)
10	I enjoy talking with old people. (나는 노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긴다)
11	I expect to feel good about life when I am old. (나는 내 노후생활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I have never dreaded the day I would look in the mirror and see gray hairs.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도리 그 날이 전혀 두렵지 않다)
13	I feel very comfortable when I am around an old person.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한다)
14	I worry that people will ignore me when I am old.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걱정된다)
15	I have never dreaded looking old. (나는 늙어 보일까 봐 두려워 해본 적이 없다)
16	I believe that I will still be able to do most things for myself when I am old.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7	I am afraid that there will be no meaning in life when I am old.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까봐 두렵다)
18	I expect to feel good about myself when I am old.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19	I enjoy doing things for old people.(나는 노인들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즐겁다)
20	When I look in the mirror, it bothers me to see how my looks have changed with age. (나는 거울 앞에서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다)

출처: Lasher et. al,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p.254 재구성

[부록3] FSA 척도

문항	구성
1	Teenage suicide is more tragic than suicide among the old. (10대의 자살이 노인의 자살보다 더 비극적이다)
2	Many old people are stingy and hoard their money and possessions. (많은 노인들은 그들의 돈과 재산에 대하여 인색하다)
3	Many old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new friends preferring instead the circle of friends they have had for years.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랜 친구를 선호한다)
4	Many old people just live in the past. (많은 노인들은 과거 속에 산다)
5	Complex and interesting conversation cannot be expected from most old people. (노인들에게 복잡하고 재밌는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6	Most old people should not be allowed to renew their drivers licences. (대부분 노인들의 운전면허 갱신을 허가 해 주면 안된다)
7	Most old people would be considered to have poor personal hygiene. (대부분 노인들은 좋지 않은 개인위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8	Most old people can be irritating because they tell the same stories over and over again. (대부분 노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나게 할 수 있다)
9	Old people complain more than other people do.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불평이 많다)
10	Old people do not need much money to meet their needs. (노인들의 경우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There should be special clubs set aside within sports facilities so that old people can compete at their own level. (스포츠 시설들 내에 노인끼리 경쟁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12	Old people deserve the same rights and freedoms as do other members of our society.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13	Old people don't really need to use our community sports facilities. (노인들은 우리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14	Most old people should not be trusted to take care of infants. (대부분의 노인들은 유아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 믿음을 받지 못한다)
15	It is best that old people live where they won't bother anyone. (노인들이 누구든 성가시게 하지 않는 곳에 노인들이 사는 것이 가장 최적적이다)
16	The company of most old people is quite enjoyable. (대부분의 노인들은 꽤 유쾌하다)
17	It is sad to hear about the plight of the old in our society these days.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 슬프다)
18	Old people should be encouraged to speak out politically. (노인들은 정치적으로 공개발언을 장려해야한다)
19	Most old people are interesting, individualistic people. (대부분의 노인들은 재미있고, 개인주의적이다)
20	I sometimes avoid eye contact with old people when I see them. (나는 이따금 노인들과 눈을 마주쳤을 때 피한다)

21	I don't like it when old people try to make conversation with me. (나는 노인들이 나와 대화하려는 것을 싫어한다)
22	Feeling depressed when around old people is probably a common feeling. (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의 우울감은 아마 공통적 감정일 것이다)
23	Old people should find friends their own age. (노인들은 그들과 또래인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
24	Old people should feel welcome at the social gatherings of young people.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사회적 모임에서 환영받아야 한다)
25	I would prefer not to go to an open house at a seniors' club, if invited. (나는 만약 시니어 클럽에 초대되어진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 쪽을 택한다)
26	Old people can be very creative. (노인들은 매우 창의적 일 수 있다)
27	I personally would not want to spend much time with an old person.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28	Many old people are happiest when they are with people their own age. (많은 노인들은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29	I would prefer not to live with an old person. (나는 노인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출처: Fraboni et. al,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ism", 1990, *Canadian Journal of Aging* 9(1), p.62 재구성

[부록4]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 나리입니다. 저는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복지주택 거주민 주거공간인식”에 관한 석사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학문적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김 나리

연락처 : 010-7195-5976

e-mail: christina12011@hanmail.net

I. 거주민의 기본정보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男) ② 여(女)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무학 ②초등 졸(중퇴포함) ③중 졸(중퇴포함) ④고 졸(중퇴포함) ⑤전문대 졸 이상

4. 귀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예 → 4-1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② 아니오 → 4-2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4-1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떤 계열입니까?

① 판매/서비스직 ② 사무직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기술/기능직

4-2 귀하의 과거 직업은 어떤 계열이었습니까?

① 판매/서비스직 ② 사무직 ③ 자영업 ④ 전문직 ⑤ 기술/기능직 ⑥ 무직

⑦ 기타: _____

5. 귀하의 주관적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

6. 귀하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7. 귀하의 이전 거주지의 위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8. 귀하께서는 언제 입주하셨습니다?

① 2008년 ② 2009년 ③ 2010년 ④ 2011년 ⑤ 2012년 이후

8-1 이 시기는 아래의 보기 중 어떤 시기와 맞아떨어집니까?

- ① 은퇴(본인/배우자) 이후 ② 자녀의 분가 후 ③ 도움이 필요 했을 때
- ④ 배우자의 사망 후 ⑤ 외로울 때 ⑥ 기타 : _____

9. 귀하께서 현재 주거지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의 권유 ② 주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하여 ③ 가족구성원의 변화
- ④ 유사 연령 간의 커뮤니티 형성 ⑤ 노화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해 줄 것 같아서
- ⑥ 주변의 환경(amenity)이 노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 ⑦ 기타 : _____

10. 귀하께서는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유(有) → 10-1문항에 답해주세요 ② 무(無) → 10-2문항에 답해주세요 ③ 잘 모르겠음

10-1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임대 계약 만료 ② 한적한 전원생활/도시기반시설 이용 ③ 만족스럽지 못한 시설 환경
- ④ 비싼 관리비용 ⑤ 사라지지 않는 고독감(감정적 측면) ⑥ 기타: _____

10-2 이주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위치적 이점 ② 주택 이미지에 대한 만족 ③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
- ④ 형성 된 커뮤니티 유지 ⑤ 자녀들의 요구 ⑥ 기타 : _____

II. 거주민의 생활양식

* 현재 주거공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주거 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① 건강 ② 보안/안전 ③ 편의시설의 다양성 ④ 커뮤니티 형성 ⑤ 사생활 보호
- ⑥ 자녀 집과의 거리 ⑦ 경제적 여건 ⑧ 교통 편리성 ⑨ 기타 : _____

2. 주거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휘트니스 센터 ② 북 카페 ③ AV 룸(극장) ④ 게임 룸 ⑤ 스파/미용 ⑥ 메디컬센터
- ⑦ 식당 ⑧ 기타 : _____

3. 주거 단지 내 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이웃 주민들과 담소나누기 ② 개인 활동(TV보기,독서) ③ 운동 ④ 운영 프로그램 참여
- ⑤ 기타 : _____

4. 주거 단지 밖으로 외출은 몇 번 하십니까?

-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주 4~5회 ⑤ 주 6회 이상

5. 외출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하십니까?

- ① 외부 친구들과의 만남 ② 자녀들과의 만남 ③ 쇼핑(일용품구매활동 포함)
- ④ 정기적 취미생활(예: 동호회) ⑤ 문화생활(영화공연 관람, 미술관) ⑥ 기타 : _____

6. 외출 시 이동 수단은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① 도보 ② 지하철 ③ 버스 ④ 택시 ⑤ 자가용 ⑥ 기타 : _____

* 과거 주거공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과거 주거 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① 건강 ② 보안/안전 ③ 편의시설의 다양성 ④ 커뮤니티 형성 ⑤ 사생활 보호
⑥ 자녀 집과의 거리 ⑦ 경제적 여건 ⑧ 교통 편리성 ⑨ 기타 : _____

2. 과거 주거 단지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① 휘트니스 센터 ② 노인정 ③ 놀이터 ④ 주민 센터 ⑤ 기타 휴게 공간
⑥ 기타시설 : _____ ⑦ 없음

3. 과거 주거 단지 내 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이웃 주민들과 담소나누기 ② 개인 활동(TV보기,독서) ③ 운동 ④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⑤ 기타 : _____

4. 이전의 거주지에서 주거 단지 밖으로 외출은 몇 번 하셨습니다?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4회 ④ 주 4~5회 ⑤ 주 6회 이상

5. 이전의 거주지에서 외출은 주로 어떤 이유에서 하셨습니다?

① 외부 친구들과의 만남 ② 자녀들과의 만남 ③ 쇼핑(일용품구매활동 포함)
④ 정기적 취미생활(예: 동호회) ⑤ 문화생활(영화공연 관람, 미술관) ⑥ 기타 : _____

6. 외출 시 주로 이용하셨던 이동 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도보 ② 지하철 ③ 버스 ④ 택시 ⑤ 자가용 ⑥ 기타 : _____

7. 노인들이 이사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3개 이하)

- | |
|--|
| ① 경제적 수익측면 ②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③ 교통 편리성
④ 주변 편의시설 ⑤ 자녀 집과의 거리 ⑥ 주택의 브랜드 이미지
⑦ 자치구의 생활수준 ⑧ 전원생활의 가능여부 ⑨ 노인들을 위한 운동·레저
시설 ⑩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⑪ 주택 가격 ⑫ 또래집단의 밀집정
도 ⑬ 이전 주거지역과 유사한/근접한 지역 ⑭ 기타 : |
|--|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housing dwellers based on Ageism

Nari Kim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 increasingly aging South Korean society, the elderly are living in a society dominated by differentiating and exclusive ageism against the a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They spend more time in residential space due to their weakened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and suspension of social activities. So, Elderly welfare housing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becomes an important variable for successful old age and elderly welfare. However, elderly welfare housing, which asks for high prices and living expenses, is exclusive to the elderly of high incom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Its residents are considered to be an elderly group that has nothing to do with exclusive ageism.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spatial attributes of elderly welfare housing currently occupied only by a restricted group, apply the perspective of ageism to the residential move mechanism of elderly welfare housing dwellers, and examine the effects of ageism on the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selected a group of subjects

among the dwellers of elderly welfare housing and used the Q methodology as an analysis method for subjective resident perception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overall residential move mechanism among the dwellers of elderly welfare housing show that more than 50% of the elderly change from "economic conditions" to "diversity of convenience facilities & health" after retirement as the criteria of residence consumption. The areas of their daily life activities expanded within the housing complex with their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decreasing relatively, which is attributed to the organization of residential space providing daily life, leisure, and medical service. Since 90% of the respondents graduated from college or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pproximately 75% respondents said that they maintained an upper to upper middle level of living standard, the consumption of such residential space was restricted to the elderly of high educational backgrounds and incomes and high social and economic status.

Secondly, Q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ageism to the residential move mechanism of elderly welfare housing dwellers that were regarded as the upper group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analysis results reveal that the respondents occupied the same residential space but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residential space. Those differences were attributed to their perceptions of ageism before and after a residential move. Their residential space perception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he first group moved to the elderly welfare housing to regulate their deteriorated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and psychological deprivation

according to the aging phenomenon and regarded residential space as "space to deal with the aging phenomenon." The second group insisted that they could maintain a high quality of life by gathering with people of similar age, assets, and values with age, because they were already fully aware of exclusive ageism against the old. So, they regarded residential space as "space separated from ageism" for them to actively refuse mixed-age activities and keep their exclusivity against the outside world after a residential move. The third group regarded elderly welfare housing as "space to maintain ageism." Their residential move was triggered by their experiences of exclusive ageism in their old residence, but the change of residential space did not eliminate differentiating ageism against what had formed in their consciousness. As a result, they still had anxiety and sense of alienation even after a residential move and anticipated that they would lead a better life by communicating with various groups at another place. The final group recognized physical and mental gaps between youth and aging and believed that they could maintain or enhance quality of life by exchanging with various people. They, however, experienced ageism due to the new daily life rules of elderly welfare housing after a residential move and accordingly regarded residential space as "space to cause ageism."

The study applied the perspective of ageism to the residential move mechanism of elderly welfare housing dwellers, who represented the elderly population of higher incom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rather than the average and demonstrated its effects. The study found that they reflected their perceptions of ageism onto their residential space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ir causes of residential moves and value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s results sound an alarm to the elderly welfare housing

policies that organize a spatial environment for the elderly including residential space without any in-depth inquiry into the existing space perceptions of the elderly.

Keywords: ageism, elderly welfare housing, residential space perception ,
the upper elderly group

Student number: 2011-23143